

THE CLC CHARISM

(revised Dec. 2001)

CLC 카리스마

(2001년 12월 개정판)

INTRODUCTION 서문.....	4
CRITERIA FOR CLC FORMATION CLC 양성 기준.....	9
I. THE CLC PERSON CLC 회원.....	10
A. TO SEEK AND FIND ONE'S VOCATION IN THE CHURCH 교회안에서 자신의 성소 찾기	10
1. THE PERSONAL VOCATION 개인적 성소.....	10
2. THE CHRISTIAN VOCATION 그리스도인의 성소.....	11
3. THE SPECIFIC CLC VOCATION CLC 라는 특별한 성소.....	14
3.1. An Ignatian vocation 이나시오적 성소.....	14
3.2. A Communal Vocation 공동체 적 성소.....	16
3.3. A Lay Vocation 평신도 성소.....	17
4. THE PROFILE OF THE CLC PERSON CLC 회원의 자질.....	18
5. To seek and find one's individual vocation in CLC; CLC 안에서 각개인의 성소 찾기 .	20
5.1. The vital role of the Spiritual Exercises in the discernment of vocation 성소 식별에 있어서 영신수련의 핵심적인 역할.....	21
5.2. The use of experiences or probations 경험이나 실습의 이용.....	30
5.3. Individual spiritual guidance 개인 영적지도.....	32
B. AVAILABILITY FOR MISSION 사명을 위해 준비됨.....	32
1. THE MEANING OF MISSION 사명의 의미.....	32
1.1. The mission of Jesus 예수님의 사명.....	32
1.2. The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사명.....	34
1.3. Sacramental dimension of mission 사명의 성사적 차원.....	34
1.4. Prophetic dimension of mission 사명의 예언적 차원.....	35
1.5. Vital Dimension of mission 사명의 생명적 차원.....	37
1.6. Mary, model for mission 사명의 모델이신 성모 마리아.....	37
2. THE CLC MISSION FIELD; CLC 사명의 영역.....	38
3. DEVELOPMENT OF MISSION IN CLC; CLC 사명의 발전.....	39
3.1. Individual mission 개인 사명.....	40
3.2. Group Mission 그룹 사명.....	42
3.3. Common mission 공동 사명.....	43
4. FINDING OUR MISSION IN CLC CLC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	43
4.1. Apostolic discernment 사도적 식별.....	44
4.2. Apostolic discernment as a permanent attitude 항구적인 태도로서의 사도적 식별	48
4.3. Criteria for apostolic discernment 사도적 식별의 기준.....	49
II.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CLC)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52
A. THE CLC PROCESS AS A COMMUNITY CLC 가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과정.....	52
B. CHARACTERISTICS OF THE CLC COMMUNITY CLC 공동체의 특성.....	54
1. A "lived" community 생활 공동체.....	54
2. A community on mission 사명의 공동체.....	57
3. A world community 세계 공동체.....	59
4. An ecclesial community 교회적 공동체.....	62
III. COMMITMENT IN CLC 서약.....	65
COMMITMENT IN THE GENERAL PRINCIPLES AND NORMS. 정관과 통칙에 나타난 서약.....	65
A. REASONS FOR COMMITMENT 서약을 하는 이유.....	66
B.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	67
1. The process leading to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에 이르는 과정.....	67

2.	The purpose and meaning of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의 목적과 의미...	69
3.	Ways of approaching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에 이르는 방법.....	71
C.	PERMANENT COMMITMENT 종신서약.....	72
1.	Permanent Commitment 종신 서약.....	73
2.	Public Commitment 공적 서약.....	74

INTRODUCTION

서 문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is a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s: men and women, adults and young people, of all social conditions, who want to follow Jesus Christ more closely and work with Him for the building of the Kingdom. Members make up small groups, which are part of larger communities organized regionally and nationally, all forming *ONE World Community*. The CLC is present in all five continents, in almost sixty countries.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CLC)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가깝게 따르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온갖 사회 조건 속에 있는 남녀 노소들로 이루어진 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이다. 회원들은 소단위 그룹들을 형성하게 되며, 모든 소 그룹은 지역별, 국가별로 조직된 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서,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이룬다. 현재 CLC는 오대양에 걸쳐 거의 6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We are convinced that CLC has much to offer the Church and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The role played by the *SODALITIES OF OUR LADY* in the formation of the laity, for the service of the Kingdom during more than 400 years of history, is a precious heritage for CLC. Christian Life Community, however, was not just a new name, given to the *Sodalities of Our Lady* in 1967. In the words of Father Paulussen, CLC represented the *rebirth of the movement, almost a new beginning*.

우리는 CLC가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제공할 것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확신한다. 평신도 집단의 형성에 있어서, 성모회 (*The Sodalities of Our Lady*, 역자 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Marian Congregation*라고 불리움)가 지난 400년 이상의 기간동안 그리스도 왕국에 봉사하기 위해 수행하여 온 역할은 CLC에게 소중한 유산이다. 하지만, 1967년에 사용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라는 명칭은 *The Sodalities of Our Lady*에 부여된 새로운 이름으로만은 아니었다. Paulussen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LC는 *거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운동의 재탄생*을 의미하였다.

The new identity of CLC was expressed in the General Principles, approved in 1971 and revised in 1990. But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felt necessary to complement this fundamental text with other documents, which expressed more explicitly the processes of formation proper to CLC.

CLC의 새로운 정체성은 1971년에 승인되고 1990년에 개정된 정관(GP)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부터 이 기본적인 본문은 CLC에 적합한 양성과정을 보다 명백하게 표현해 주는 다른 문헌들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In 1982, the World Community presented *SURVEY* as a key paper giving direction to CLC formation. Today, a duly adapted *SURVEY* remains relevant to any analysis and description of the growth of a CLC, of the means used and of the contribution of different roles at each stage in this growth.

1982년, 세계 공동체는 CLC양성에 방향을 정해주는 주요 문헌으로서 *SURVEY*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공식 채택된 *SURVEY*는오늘도 CLC의 성장과, 성장과정의 각 단계에서 사용된 수단과 상이한 역할이 행한 기여에 대한 분석이나 서술에 적절한 것으로

존속한다.

Nevertheless, there is a need for a clearer presentation of the vocation of our lay members, which will enrich the formation plans of our National Communities and strengthen the unity of the World Community. The World Assembly in Hong Kong in 1994 was particularly aware of this need and recommended the implementation of formation plans (initial and continuing)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공동체의 일치를 강화하고 국가 공동체의 양성계획을 풍요롭게 해줄 우리 평신도 회원들의 성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1994년 홍콩에서 개최된 세계 총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특별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한 (시초 및 지속적인) 양성 계획을 실행토록 권고하였다.

The first step was the drawing up of a brief paper *Criteria for CLC Formation* by an international working party. The first draft was re-worked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meetings for Jesuits and CLC*, which took place in Europe, Africa, and Latin America between 1995 and 1996.¹ In December 1996, this was published as a *Progressio* supplement (no. 45-46) so that National Communities could put it to the test and use it as a working document in their preparation for the next World Assembly in Brazil.

그 첫 단계는 국제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CLC 양성을 위한 기준 (Criteria for CLC Formation)*에 대한 간략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초안은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유럽,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예수회와 CLC 국제회의의 입장에서 보완되었다. 1996년 12월에 이것이 *Progressio* 보충자료 (no. 45-46)로 출판되었다. 그리하여 각 국가 공동체들은 그것을 브라질에서 개최될 차기 세계 총회 준비를 위한 문서로 사용하며 시험해볼 수 있었다. .

Throughout 1997, the ExCo² received comments and suggestions about this document. Using these contributions, a small group of experts completed it and unified its style, giving it its present form. Thus we again offer it to the World Community as a valid expression of the Ignatian charism, which is our character. Taking into account so many different cultures, we felt it fitting to keep the text as a "working document" which can enrich and be enriched by the formation programs and the experiences of each National Community. In the search for greater fidelity to our charism, it did not seem useful to ratify the text formally at the World Assembly in Brazil.

1997년 한 해 내내, ExCo (세계 CLC 상임 위원회)²는 동 문헌에 대한 검토 의견과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소규모의 전문가 그룹이 양식에 일관성을 부과하고 완성하여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 문헌을 우리의 특징인 이냐시오적 카리스마(Ignatian Charism)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문헌으로서 채택해 줄 것을 세계 공동체에 재차 제안하였다. 매우 다양한 서로 다른 문화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문헌이 각

¹ *In English:* Italy, August 1995; Philippines, April 1997; Australia, July 1997.

In Spanish: Argentina, October 1995; Peru, January 1996; Spain, April and November 1996; Mexico, October 1996; Dominican Republic, May 1998.

In French: Zaire, July 1995; Egypt, January 1996; Cameroon, August 1996; Ivory Coast, August 1996.

² CLC's World Executive Council whose Secretariat is in Rome 세계 CLC 사무국은 로마에 있음

국가 공동체의 경험과 양성 계획을 풍요롭게 하는 한편, 그를 통해 계속 보완되어 갈 수 있도록 “실무자료 (Working Document)”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카리스마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는 식별과정에서, 이 문헌을 브라질에서 개최될 세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These guidelines have been written for group guides, assistants and those responsible for CLC formation. Their greater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community's way of life will make it easier for each National Community to adapt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to the stage of growth of its members.

여기에 포함된 지침들은 그룹 가이드, 보조자들 및 CLC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쓰여졌다.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대한 지식과 축적된 보다 큰 경험은 각 국가 공동체로 하여금 이 문헌의 내용을 소속 회원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There are two parts to this document:

1. **Criteria for CLC formation, and**
2. **The CLC process of Growth and the Appendices.**

본 문헌은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1. **CLC 양성의 기준**
2. **CLC 성장 과정 및 부록**

For a better understanding and use of the document we propose the following keys for interpretation:

본 문헌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 우리는 아래의 몇 가지 요점들을 제시한다:

The personal dimension of the Ignatian process of formation (human vocation)

**이냐시오적 양성과정의 개인적인 차원
(인간이라는 성소)**

St Ignatius firmly believed that each creature was an original and unique work of the Creator. Each person,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is free to respond to His love. These Criteria for Formation help us to recognize those who have chosen CLC as their way of life, and *how they should be formed*. Until now, in CLC's rich history, the emphasis has been mainly on community.

이냐시오 성인은 각각의 창조물이 창조주의 고유하고 원천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각 개인은 그분의 사랑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양성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CLC 를 삶의 양식으로 선택한 이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양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CLC 의 풍요로운 역사 속에서 주로 공동체에 강조점을 두어왔다.

Now, without losing anything of that richness, it is a matter of looking at *the person* (subjectum) who has the potential for entering the school of the Spiritual Exercises and of living the CLC way of life. The Ignatian is process of formation addressed to everyone and helps each one to put everything that he/she is and has at the service of the Kingdom of God. To achieve this, each person is invited to live in an attitude of availability, always ready to question his/her personal way of acting and thinking, while trying constantly to integrate *experience, reflection and action*³. To be faithful to that process of formation, CLC wants to form men and women who offer themselves freely to the Lord and the Church, ready to serve wherever they are sent. These *criteria* form a reference for this process of formation.

그러한 풍요로움을 전혀 잃지 않으면서, 이제는 영신수련을 시작하여 CLC 생활양식을 살아갈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사람(주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냐시오적인 사람이란 모두에게 적용되는 양성의 과정이며,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 왕국에 봉사하는데 투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각 개인은 *경험, 사고 및 행동을* 통합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³,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태도로 살도록 초대받고 있으며, 언제나 자신의 개인적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의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양성과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CLC는 그 어떠한 곳에 파견되더라도 그곳에서 기꺼이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과 교회 앞에 자유롭게 봉헌하는 사람들을 양성시키기를 원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양성과정에 대한 좌표가 된다.

The breath of the Spirit throughout CLC history

CLC 역사 전반에 흐르는 성령의 숨결

Under the guidance of the Lord and of His Spirit, the CLC formation has been gradually codified in various papers: those of the World Assemblies, *SURVEY*, the revised General Principles and in numerous formation tools and programs. These *criteria* form another page of this history of the presence and action of the Lord⁴. Thus, they should not be seen as supplementary, but as a humble attempt to sum up the most recent graces which have marked our path and which have taken us a step further towards living the CLC charism in its fullness.

주님과 그분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CLC 양성은 점차 다양한 문서로 성문화되어 왔다. 즉, 세계 총회 문헌들, *SURVEY*, 개정된 정관, 그리고 많은 양성 수단 및 프로그램들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기준은 주님의 현존과 활동의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장을 이룬다.⁴ 따라서, 그러한 문헌들은 보충적인 것으로 보기 보다는, 우리의 갈 길을 표시해왔고 우리로

³ Regarding the Ignatian paradigm we recommend you read “*Ignatian pedagogy - a practical approach*”, a document prepared in 1993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Educational Apostolate of the Society of Jesus, ICAJE. 이냐시오적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회의 교육사도직을 위한 국제 위원회(ICAJE)에서 1993년에 작성한 “*이냐시오적 교육학- 실천적 접근*” 문서를 읽어보기를 권고한다.

⁴ Among the documents included in the appendixes you can consult those, which refer to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CLC. 부록에 첨부된 CLC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자료들을 참고

하여금 CLC 카리스마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한걸음 이끌어 준, 가장 최근의 은총들을 한데 모으려는 겸손한 시도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Sharing our common heritage **우리의 공동 유산에 대한 나눔**

CLC history written by the Spirit is inseparable from the history of its apostolic association with the Society of Jesus and those other religious families of Ignatian inspiration, to the greater service and glory of God. This collaboration between CLC and the Society of Jesus has been growing with the passage of time.

성령에 의해 쓰여진 CLC의 역사는 하느님께 보다 더 큰 봉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수회 및 이냐시오 영성을 따르는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 사도적으로 연계된 역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CLC와 예수회 간의 이러한 협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성장하고 있다.

Now, after the Thirty-Fourth General Congregation of the Society of Jesus⁵, this collaboration can intensify due to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Society, to set up an *Ignatian apostolic network* in order to increase the human and institutional resources at the service of Christ's mission.

예수회 제 34차 총회⁵ 이후, 이제 이러한 협력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는데 있어서 인간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자원들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냐시오적 사도적 연계망*을 구성하도록 한 예수회의 권고에 의해 더욱 공고해 질 수 있게 되었다.

These *documents* should be read and put into practice in the light of this cooperation. They are intended for those involved in CLC formation, many of them Jesuits. We share with them the common heritage of the Spiritual Exercises, the riches of a long tradition, and the desire to commit ourselves, in mission, to the service of others.

이들 *문헌*들은 이러한 협력의 측면에 비추어서 읽혀지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헌들은 CLC 양성에 관여된 이들을 위한 것이며, 이들 대부분은 예수회원들이다. 우리들은 영신수련이라는 공통된 유산과, 오랜 전통의 풍요로움, 그리고 사명에 있어서 타인에게 봉사하는데 우리 자신을 투신하고자 하는 소망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⁵ The document “*Cooperation with the laity in mission*”, of the 34th General Congregation of the Society of Jesus, is included in the appendixes. 예수회 34차 총회의 “*사명에 있어서 평신도와의 협력*”이라는 문서는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CRITERIA FOR CLC FORMATION

CLC 양성 기준

1. This paper sets out to describe the specific CLC charism. It presents it as a particular vocation within the Church to which its members respond with a life commitment. Such an approach expresses both the simplicity and the richness of the charism, drawing attention both to its historical roots and its later enrichments. This does not pretend to be an exhaustive account of the subject, or to examine all its aspects.

본 문헌은 구체적인 CLC 카리스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문헌은 CLC 카리스마를 CLC 회원들이 전 생애를 통해 응답하는 교회 안에서의 특정한 성소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역사적인 근원과 그 후의 발전에 주의를 이끌어 내면서, 카리스마의 단순함과 풍요함을 동시에 표현한다. 이것이 주제를 전부 다룬다거나 주제의 모든 측면을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2. The presentation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National Communities, but our approach goes well beyond that which is actually lived in this or that Community. The CLC vocation and the CLC charism are an ideal and a challenge for all of us. Contributions from very experienced CLC members are certainly necessary so that the proposals can be put into effect in each National Community. But also, we must all continue to work without stint on the task of renewing, according to our charism, both our personal and our community life.

이 제시가 각 국가 공동체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우리의 접근은 각 공동체가 실제 산 것 그 이상으로 가고자 한다. CLC 성소와 카리스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상이며 도전이다. 여러 제안들이 각 국가 공동체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험이 아주 많은 CLC 회원들의 기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카리스마에 의거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쇄신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I. THE CLC PERSON CLC 회원

A. TO SEEK AND FIND ONE'S VOCATION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소 찾기

1. THE PERSONAL VOCATION 개인적 성소

3. We hope that all CLC members will participate in the mission of Christ according to their own vocation in the Church. *"Our Community is made up of Christians: men and women, adults and young people, of all social conditions, who want to follow Jesus Christ more closely and to work with Him for the building of the Kingdom, having recognised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as their special vocation within the Church".* (GP 4)

우리는 모든 CLC 회원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성소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공동체는 보다 더 긴밀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CLC 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명으로 깨달으며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남녀 청장년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다.” (정관 4 번)⁶

4. The foundation of CLC formation and renewal is *the value of each person* and the conviction that each person has a *divine vocation*, which embraces all dimensions of that person's existence. God calls everyone. God takes the initiative, but respects our personal freedom. Each individual discovers this call when he/she listens to it and accepts God's wishes. This call of God is a personal vocation, which reveals itself in our deepest inclinations and our most authentic desires. Our free response to God's call is what gives meaning and dignity to our existence.

CLC 양성과 쇄신의 근거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이며 또 각 개인이 자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을 감싸는 신성한 성소(聖召)를 가지고 있고 있다는 확신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지만 우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신다. 각 개인은 이런 부르심을 듣고 하느님의 원의를 받아들일 때 이 부르심을 발견한다. 하느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개인적 성소이며, 개인적 성소는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과 경향 안에 드러난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운 응답에 따라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존엄성을 부여받는다.

5. Understanding our personal life, our family, work and civic life as a response to the call of the Lord frees us from any inclination to resign ourselves to the situations in which we find ourselves. Equally, it brings us to react against that conformity which seeks to impose a state and style of life on us.

개인생활, 가족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지배되는 숙명론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⁶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approved by the World Assembly in Guadalajara '90, and confirmed by the Holy See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 quotation is from the paraphrased version used in England and Wales and other English speaking countries. “CLC 정관”은 1990년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세계 총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교황청에 의해 인준되었다. 인용된 부분은 영국, 웨일즈 그리고 다른 영어 사용국가에서 사용되는 의역본에서 인용한 것이다.

동시에 이런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생활양식과 상태를 강요하고자 하는 확일성에 거슬러 반응하도록 한다.

6. Each person finds in his or her own personal vocation the concrete way to live the *universal vocation* of the human family, which is a call to communion with the Father through the Son in the Spirit of love. In fulfilling his mission as a loving response to the call of the Lord, the individual progressively fulfils his or her destiny of developing a full communion with God and with the human family.

각 개인은 사랑의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아버지와 일치하라는 부르심인 인류 가족의 보편적인 성소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성소 안에서 발견한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면서, 각 개인은 인류가족과 더불어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 나간다.

7. In this document CLC is presented as a particular vocation within the Church. But, this vocation can be understood only in the light of the fundamental vocation of all Christians.

이 문헌은 CLC 를 교회 안의 독특한 성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근본적인 성소라는 각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2. THE CHRISTIAN VOCATION 그리스도인의 소명

8. Christian life is the answer to the call of Jesus to follow Him and to be transformed by His Spirit. This is the design of the Father who has predestined us in Christ⁷. Christ invites us to follow Him in His life and death by adopting, with the grace of the Spirit, those same feelings and attitudes which were His and which are set out in the Beatitudes⁸, so that we too may pass from death to true life⁹.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⁷ “Before the world was made, he chose us, chose us in Christ, to . . . live through love in his presence, ... [to] become his adopted children through Jesus Christ...” (Ephesians 1:4-5)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에페소 1,4-5).

⁸ Mt 5:3-12 (마태오 5,3-12)

⁹ “All I want to know is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o share his sufferings by reproducing the pattern of his death. That is the way I can hope to take my place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Phil 3:10-11).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비 3,10-11)

성부의 계획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총을 입어 당신이 삶과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시면서 지녔던 동일한 느낌과 태도 즉 진복팔단에 나와 있는 느낌과 태도를 지니고 당신을 따르도록 초대하신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죽음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⁹

9. The Lord invites us to intimacy with Him¹⁰, and to collaborate with Him in His mission of announcing the Good News and promoting God's Reign.¹¹

주님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며,¹⁰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촉진시키는 자신의 사명에 협력하도록 초대하신다.¹¹

10. We respond to this call of the Lord in faith by welcoming His word and the gift of His Spirit, by which the Father consecrates us for the mission of Christ, priest, prophet and king. Baptism is the sacramental sign of this incorporation within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the community of His followers.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응답한다. 이런 응답을 통해서 성부께서는 사제요 예언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이며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는 성사적인 상징이다.

11. God's call is inserted in the fabric of our natural gifts and in the circumstances of both our personal and social history, in which we participate.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연적 재능 속에 삽입되어 있으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역사의 환경 안에 내재되어 있다.

12. The Christian vocation is an invitation to *reorder* all one's life by placing Jesus at its centre. In the Christian vocation, we find the inspiration to choose a new lifestyle, the strength to persevere and the joy to announce the Good News to the poor¹², to love and to pardon.

그리스도인의 성소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앙에 모시고 삶 전체를 *재조정하라*는 초대이다. 그리스도인 성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태도를 선택하는 영감, 인내하는 능력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¹² 사랑하며 용서하는 기쁨을 발견한다.

13. **In adults**, who have already defined their family and professional lives, the question of how to follow Jesus will affect, above all, *the way of living* their commitments so as to arrive at a profound and gradual transformation of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with their material means

¹⁰ "...I call you friends because I have made known to you everything I have heard from my Father. You did not choose me, no, I chose you; ..." (Jn 15:15-16)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 15-16).

¹¹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am sending you." (Jn 20:2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¹² Lk 4:14-21 루가 4,14-21

and with themselves. In the language of Ignatiu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leads to the *amendment or reform of one's life*.

이미 가정이나 전문직업을 가진 **성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은 무엇보다도 타인들과 물질적 수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심오하고도 점진적인 변화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투신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냐시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의 삶의 개선 혹은 쇄신*으로 이끈다.

14. **In young people**, who have not yet clearly defined what they want to be or to do, the question of how to follow Jesus not only leads them to a new *way of life* but it will also help them to make freer decisions about their *life choices* (to start a family, celibacy, priesthood or religious life, a profession).

아직 뚜렷하게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은 그들을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가정, 독신, 사제직 혹은 수도직, 전문직을 시작하는) *삶의 선택*에 대하여 보다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15. Vocation is intimately linked to mission. When a Christian deepens his or her bonds of friendship with the Lord, He entrusts a mission to them. Vocation has its origin in the entering of God into their lives and needs time to transform their hearts, binding them totally to Christ. The mission entrusted to them by Christ is a deep, permanent and growing desire born out of this bond¹³.

성소는 사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과의 친교의 관계가 깊어질 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 성소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는데 그 기원이 있으며, 마음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지는 사명은 이러한 결속에서 나오는 깊고 영구적이며 성장해 가는 열망이다.¹³

16. CLC members recognise their personal vocation within the Church in this particular form of Christian life. The particular vocation of CLC members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cernment of their apostolic mission, that is, the type of service each Christian is being called to render in the Church for the evangelisation of the world.

CLC 회원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독특한 형태를 통해 각자 개인의 성소를 인식한다. CLC 회원의 특별한 성소는 사도적 사명에 대한 식별, 즉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인 각자가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불림 받고 있는 봉사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¹³ “He appointed twelve, whom he also named apostles to be with him, and to be sent out to proclaim the message...” (Mk 3:14)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시며...” (마르코 3,14)

3. THE SPECIFIC CLC VOCATION CLC 라는 특별한 성소

17. The CLC vocation makes the universal Christian vocation specific by means of three principal characteristics.

CLC 성소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성소 안에서 세 가지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3.1. An Ignatian vocation 이냐시오적 성소

18. The charism and spirituality of CLC are Ignatian. Thus,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are both the specific source of this charism and the characteristic instrument of CLC spirituality.¹⁴

CLC 의 카리스마와 영성은 이냐시오적인 것이다. 따라서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이 카리스마의 독특한 원천임과 동시에 CLC 영성의 특징적인 도구다¹⁴.

19. The General Principles emphasise the Ignatian character of CLC by using phrases throughout the text, which refer to the experience of *The Exercises* or to the Ignatian charism. They emphasise the central role of Jesus Christ. Their explicit references to the Ignatian origins of the CLC way of proceeding and to the importance of *apostolic discernment* in opening oneself to the most urgent and universal calls of the Lord make it clear that discernment is to become the normal way of making decisions.

정관은 영신수련의 경험이나 이냐시오적 카리스마를 언급하는 본문의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CLC 의 이냐시오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CLC 행동양식의 이냐시오적인 근원과 주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시급한 부르심에 자신을 개방하는 사도적인 식별의 중요성에 대한 정관의 분명한 언급은 식별이 결정을 내리는 정상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 The CLC way of life is shaped by the features of *Ignatian Christology*: austere and simple, in solidarity with the poor and the outcasts of society, integrating contemplation and action, in all things living lives of love and service within the Church, always in a spirit of discernment. This Ignatian Christology springs from the contemplation of the Incarnation where the mission of Jesus is revealed. It springs forth from contemplating Him who is sent by the Father to save the world; who personally chooses and calls those He wants to collaborate with Him from among those who recognize themselves as being weak and sinners. It arises from following Jesus the Eternal King who emptied Himself^{15[10]} in order to live a life of poverty and humiliation, in union with Him in his passion and resurrection, when the strength of the Spirit forms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CLC 생활양식은 이냐시오적 그리스도론의 특징에 의해 형성된다. 그것은 간소하고 단순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하며, 활동과 관상을 통합하며, 모든 것

¹⁴ “Our vocation calls us to live this spirituality, which opens us and disposes us to whatever God wishes in each concrete situation of our daily life.” (GP 5)

“우리의 성소는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따를 수 있는 영성을 사는 것이다.” (정관 5)

¹⁵ Philippians 2:7 필립비 2,7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항상 식별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냐시오적인 그리스도론은 예수님의 사명이 드러나는 강생에 대한 관상에서 나온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로부터 파견되고, 자신을 약한 사람이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상에서 나온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겪으신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15[10]} 영원한 임금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비롯된다.

21. Ignatian Spirituality also explains the *Marian character* of the CLC charism. The role of Mary in the Community is, in effect, the same role that she has in the Exercises and in the spiritual experience of Ignatius. The mother of Jesus is constantly present at the side of her Son, a mediator as well as an inspiration, and a model of response to His call and to working with Him in His mission.

또한 이냐시오 영성은 CLC 카리스마에서 *마리아의* 특성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리아의 역할은 영신수련과 이냐시오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드러난 성모님의 역할과 동일하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드님 옆에 늘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중재자로 때로는 영감을 주는 이시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에 함께 하신 모범이시다.

22. In the light of the founding experience of the Exercises, the CLC has as its visi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ife in every dimension: personal, social, professional, political and ecclesial.

영신수련이 일깨워주는 체험을 통해, CLC 는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정치적 그리고 교회적 차원이라는 모든 차원에서 신앙과 삶의 통합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

23. The spirituality of the Exercises strengthen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is Christian vocation.

영신수련의 영성은 이러한 그리스도인 성소의 독특한 특성을 강화시켜준다.

24. The Ignatian *magis* sets the style of our response to the universal call to holiness, seeking the "greater glory of God", by following Jesus Christ more closely^{16[11]} through "offerings of greater worth and importance"¹⁷

이냐시오가 말하는 *보다 더(Magis)*는 “더 큰 가치와 중요성을 봉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친밀히 추종하여^{16[11]}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으로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양식을 정해준다.”¹⁷

25. Christ, moreover, reveals Himself in Ignatian Spirituality as "a man for others", and to follow Him is to put ourselves at the service of our brothers and sisters: a distinctly *apostolic* way of understanding the Reign of God. CLC members are Christians who "want to follow Jesus Christ more closely and work with Him in the building of the Kingdom"¹⁸

¹⁶ GP 4. 정관 4

¹⁷ SpEx 97,104, etc. 영신수련 97, 104 등

무엇보다도 이나시오 영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한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한 독특한 사도적 이해 방식이다. CLC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가까이 따르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일하기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다.¹⁸

26. Finally, the Exercises, and hence our spirituality, underline the *ecclesial character* of apostolic service. In as much as it is a mission received from Christ, it is mediated through the Church. "*Union with Christ leads to union with the Church where Christ here and now continues His mission of salvation*"¹⁹

마지막으로 영신수련과 우리의 영성은 사도적 봉사에 있어서 *교회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인 만큼 사도적 봉사는 교회를 통하여 매개된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제신 지금 여기 당신의 구원 사명을 지속해 가시는 곳인 교회와의 일치로 이끈다.”¹⁹

27. The Ignatian character of CLC²⁰ and its members finds expression in the regular practice of the Ignatian way of prayer, examen, evaluation and apostolic discernment (personal as well as communal), and by frequent participation in the sacraments.

CLC 와 CLC 회원의 이나시오적 특성은 ²⁰ 이나시오식의 기도, 의식성찰, (개인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의) 평가와 사도적인 식별과 꾸준한 성사생활을 통해 드러난다.

3.2 A Communal Vocation 공동체적 성소²¹

28. CLC members live Ignatian Spirituality in community. The help of brothers and sisters sharing the same call is essential for our growth in fidelity to our vocation and mission. In addition, community itself is a constituent element of the apostolic witness of CLC.

¹⁸ GP 4. 정관 4

¹⁹ GP 6 정관 6

²⁰ The Ignatian heritage can be likened to a great tree planted in the garden of the Church. The principal branch of the tree is undoubtedly the Society of Jesus, but *Ignatian* is not a synonym for *Jesuit*. The spirituality of the Exercises nourishes other religious and lay groups as well, each of which expresses in its own way this or that character of the Ignatian charism. It is among these groups that a special place has to be given to the Marian Congregations, the predecessors of the CLC.

이나시오의 유산은 교회라는 정원에 심어진 큰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이 나무의 가장 주된 가지는 예수회다. 그러나 *이나시오적 사람*이 곧바로 *예수회원*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영신수련의 영성은 여러 수도단체들과 평신도 단체를 키워냈으며, 이들 각 단체들은 이나시오적 카리스마의 여러 특색들을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들 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모회였으며 이를 이어받은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이다.

²¹ This dimension of CLC's vocation is described in detail in a special section (no. 125-163). CLC 성소의 이러한 차원은 따로 자세히 설명되어있다.(#125-163)

CLC 회원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나시오 영성을 산다. 같은 부르심을 함께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은 우리의 성소와 사명에 대하여 더욱 충실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동체 자체는 CLC의 사도적인 증거에 있어 구성요소가 된다.

29. *"To prepare our members more effectively for apostolic witness and service, especially in our daily environment, we form communities of those who strongly desire to unite their human lives completely with their Christian faith according to our charism"*²²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회원들이 사도적 증거와 헌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의 카리스마에 따른 원숙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은다.”²²

3.3. A Lay Vocation 평신도 성소

30. CLC is defined in the General Principles as an association, not of laity, but of the faithful: *"Our community is made up of Christians: men and women, adults and young people, of all social conditions..."*²³

정관은 CLC가 평신도들의 단체가 아닌 신앙인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다양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남녀, 청장년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다.”²³

31. With maturity, however, at the time of Permanent Commitment, the CLC vocation is specifically lay, with its objectives and its characteristics: *"We seek to achieve this unity of life in response to the call of Christ from within the world in which we live."*²⁴

그러나 성숙된 종신서약의 단계에서 CLC 성소는 그 목적과 특성이 특별히 평신도의 것이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한다.”²⁴

²² GP 4. 통칙 4 번

²³ GP 4. 통칙 4 번

²⁴ GP 4. In 1946, Pope Pius XII said *"The faithful, more precisely the lay faithful, find themselves on the front lines of the Church's life; for them the Church is the animating principle for human society. Therefore, they in particular ought to have an ever-clearer consciousness not only of belonging to the Church, but of being the Church."* 1946년에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신앙인들, 더 정확하게 평신도 신앙인들은 교회의 삶에 있어 전망에 위치하고 있다. 신앙인들에게 교회는 인간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특히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한다.”(AAS 38, 1946, pg.149)라고 말씀하셨다.

The Second Vatican Council treated the same subject as follows: “A secular quality is proper and special to the laity... But the laity, by their very vocation, seek the kingdom of God by engaging in temporal affairs and by ordering them according to the plan of God. They live in the world, that is, in each and in all of the secular professions and occupations. They live in the ordinary circumstances of family and social life, from which the very web of their existence is woven. God calls them there, so that by exercising their proper function and being led by the spirit of the gospel, they can work for the sanctification of the world from within, in the manner of leaven. In this way they can make Christ known to others, especially by the testimony of a life resplendent in faith, hope, and charity. The laity is closely involved in temporal affairs of every sort. It is therefore their special task to illumine and organize these affairs in such a way that they may always start out, develop, and persist according to Christ's mind, to the praise of the Creator and the Redeemer.” (LG 31)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도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 평신도들의 임무는

4. THE PROFILE OF THE CLC PERSON CLC 회원의 자질

32. The CLC vocation presupposes certain conditions, essentially those required to make the Spiritual Exercises. This aptitude is recognised in those characteristics, which allow the individual to encounter God. It is not so much a question of something already acquired as the potential. To indicate such an aptitude St Ignatius uses the expression "*tener subiecto*". *Tener subiecto* has a dynamic sense: an individual becomes progressively "subiecto" (disposed) or, conversely, not disposed; we may move forward or backwards, but we are never static, we never remain in the same place.

CLC 성소는 본질적으로는 영신수련을 행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소질은 개인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특성 안에서 인식되어진다. 이것은 이미 획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잠재력의 문제이다. 그런 자질을 알려주기 위해 성 이냐시오는 "*tener subiecto*"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tener subiecto* 는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인은 점차적으로 자신을 처분에 맡기거나(subiecto) 맡기지 않게 된다. 우리는 전진하거나 후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정적이지는 않으며 결코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33. The Annotations²⁵ offer us a picture of the adult exercitant. This picture is sometimes a point of departure and sometimes a point of arrival. These are the minimal conditions, laid down by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마치 그들의 삶이 짜여지는 것 같은 일상의 가정생활과 사회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또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써 믿음과 바람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 현장 31)

And Pope John Paul II wrote, “The 'world' thus becomes the place and the means for the lay faithful to fulfil their Christian vocation, because the world itself is destined to glorify God the Father in Christ. The Council is able then to indicate the proper and special sense of the divine vocation, which is directed to the lay faithful. They are not called to abandon the position they have in the world... on the contrary, [baptism] entrusts a vocation to them that properly concerns their situation in the world... Thus for the lay faithful, to be present and active in the world is not only an anthropological and sociological reality, but, in a specific way, a theological and ecclesiological reality as well.” (*Christifideles Laici* 15) 그리고 요한 바오로 2 세계서는 “그러므로 ‘세상’은 평신도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소를 달성하는 장이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는 평신도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소에 대한 적절하고 특별한 감각을 알려줄 수 있었다. 평신도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포기하도록 불림 받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세례]는 평신도들이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적절하게 관심을 보이는 성소를 그들에게 부여하였다... 따라서 평신도 신앙인에게 있어 세상 안에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것이 인류학적, 사회적인 현실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15)

²⁵ SpEx 1-20. 영신 수련 1-20

Ignatius, for undertaking the adventure and also, more fully, the result of the undertaking.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 traits, which define a suitable individual, must in some manner be present in the beginning. Ignatius adapted the Exercises to each individual, but at the same time, he recommended that the question of an election should not be put to everyone indiscriminately. Moreover, in describing both the exercitant and the conditions required for undertaking the Spiritual Exercises, Ignatius presupposes that whoever wishes to have this experience wants above all "to love and serve the Divine Majesty".²⁶ These are als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best fitted to become a CLC member.

일러두기 ²⁵ 는 우리에게 성인 피정자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모습은 때로 출발점이며 때로 종착점이다. 이것들은 이냐시오가 제시한 모형을 착수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들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적합한 사람을 정의 내리는 특징적인 흔적이 어떤 양식으로든 처음부터 있어야 한다.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했지만, 선택에 대한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더욱이 수련자와 영신수련을 행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기술함에 있어,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지존하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기 ²⁶ 를 열망해야 한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들이 또한 CLC 회원이 되는데 적합한 개인의 특징이 된다.

34. These personal characteristics, which must in some way be present at the beginning of the Ignatian experience, can be put into two categories.

이냐시오적 체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든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이런 개인적인 특성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35. **From the human point of view 인간의 관점에서:**

- *capable of facing reality*, sensitive to the social and political world in which he or she lives, able to communicate and render service to others in a significant way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세계에 민감하며, 의미있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봉사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with strong desires* to lead a passionate and dynamic life, even if these ideals are, at least for a short time, mingled with personal ambition
비록 짧은 시기동안 개인적인 야심과 섞일 수도 있지만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
- *not self-satisfied* with their own little world but ready to modify their points of view and lifestyle
자신의 작은 세상에 자족하기 보다는 자신의 견해와 생활양식을 기꺼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

36. **Concerning their experience of God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 관하여**

²⁶ SpEx 233. (영신 수련 233)

- *moved by the desire*²⁷ to encounter and follow Jesus Christ²⁸
예수님을 만나 따르고자²⁸ 하는 열망을 지닌 사람²⁷
- *in love with Jesus and His mission*, yearning for a deeper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that will redirect and correct, if necessary, their needs and aspirations, and heal their wounds and weaknesses
필요하다면 자신의 필요와 영감을 수정하고 방향을 재조정하며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치유해 주실 예수님과 보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열망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사랑에 빠지는 것*
- *aware of being a sinner*, but loved and chosen by Christ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것은 아는 것
- *open to the needs of others*, ready to serve them and to join with all who seek to build a world both more human and more divine
다른 사람의 필요에 개방되어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신적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 *conscious of being a responsible member of the Church*, identified with its message and committed to its mission
교회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고 교회 사명에 투신한 책임있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식하는 것

5. TO SEEK AND FIND ONE'S INDIVIDUAL VOCATION IN CLC CLC 안에서 자신의 성소 찾기

²⁷ Desires are essential for St Ignatius. For him, being human means basically being capable of having desires. For Ignatius, a person's capacity to grow in holiness and bear apostolic fruit depends on the strength of his/her desires. For St Ignatius a desire is a life thrust, which enables the person to wish, dream, act and love. A human being is someone with the desire for justice, peace and love: with a desire for God. The more a person fosters the inner capacity for desires, the more he/she is prepared to be fulfilled by God. Thus, for St Ignatius, those with strong desires, even if they were still sinners, were suitable for the Exercises. For Ignatius the spiritual life does not consist in keeping rules and guidelines, but in having desires, which the Lord can foster and fulfil.

성 이냐시오에게 열망(원의)은 필수적이다. 이냐시오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망(원의)을 품을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냐시오는 성스러움 안에서 성장하고 사도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그들의 열망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냐시오에게 있어 열망은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고, 실행하고, 사랑하게 하는 삶의 목표이다. 사람은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 하느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사람이 열망에 대한 내적 수용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는 더욱 더 하느님에 의해 완성될 준비가 되어진다. 따라서 이냐시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영신수련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이냐시오는 영적인 삶이 규칙과 지침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키우시고 완성시키시는 열망을 갖고 있음에 있다고 본다.

²⁸ Constitutions 102. 예수회헌 102

37. *The formation of the laity should bring them an ever-clearer discovery of their vocation and an ever-greater readiness to live it so as to fulfil their mission.*²⁹

평신도 양성의 근본 목적은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성소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성소를 더욱 기꺼이 생활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²⁹

38.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whether an individual has a CLC vocation, two things must be considered. First, whether the individual hoping to live such a vocation has a suitable disposition and, second, if they do, how this can be strengthened and the person helped to recognise that God is calling them to embrace the CLC way of life. These elements of the CLC process of formation in relation to vocation are based mainly on the Spiritual Exercises.³⁰

개인이 CLC 성소를 갖고 있는지 발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그러한 소명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적절한 의향인가? 둘째, 만약 적합한 의향이라면 이러한 지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와 하느님께서 그 개인을 CLC 생활양식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성소에 관련된 CLC 양성과정의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영신수련에 기초를 두고 있다.³⁰

5.1. The vital role of the Spiritual Exercises in the discernment of vocation 성소의 식별에 있어서 영신수련의 핵심적 역할

39. The discernment of a particular vocation to the CLC is made mainly during the Spiritual Exercises where are found, besides the basic perspectives that determine the choice of a Christian way of life, the stages for discerning vocation.

CLC 라는 특별한 성소에 대한 식별은 무엇보다도 영신수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위한 도구와 성소 식별의 단계를 발견한다.

40. The Spiritual Exercises are fundamental and essential for living the CLC vocation. They are the "source and characteristic instrument of our spirituality".³¹ Therefore, we cannot understand or much less live the CLC vocation without experiencing the Exercises.

영신수련은 CLC 성소를 살아가는데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영신수련은 "우리 영성의 근원이며 특징적인 도구이다"³¹ 그러므로 우리는 영신수련 없이는 CLC 성소를 이해할 수 없거나 미흡한 채로 살게 된다.

²⁹ *Christifideles Laici* 58. 평신도 그리스도인(요한 바오로 2 세의 사도적 권고, 1988) #58

³⁰ The purpose of the Exercises is to "overcome oneself, and to order one's life" (SpEx 21); "to explore and inquire in which life or state does his Divine Majesty wish us to serve Him" (SpEx 135); they are the school for making us listen to the call of God and for helping us to respond, and for making us ever more ready to be always listening to His divine voice, transforming our entire life into a generous response to the Lord who calls us and who sends us. The Exercises prepare us for a life of "call-response".

영신수련의 목적은 "자신을 이기고 자기 생활을 정리함" (영신수련 21) 이고 "하느님께서 당신께 봉사함에 있어 우리를 어떠한 생활에 즉 어떠한 신분에 쓰고 싶어하시는데 대하여 연구하고 기도함" (영신수련 135) 이다. 영신수련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도록 돕고 성부의 목소리를 항상 듣도록 준비시키고, 우리 삶 전체를 우리를 부르시고 파견하시는 주님에 대한 관대한 응답의 삶으로 변화시킨다. 영신수련은 우리를 "부름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³¹ GP 5. 정관 5

41.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the Exercises, St Ignatius defines what he understands to be the method God inspired in him; thanks to which, he could help many: "...by this name of *Spiritual Exercises*, is meant every way of examining one's conscience, of meditating, of contemplating, of praying vocally and mentally, and of performing other spiritual actions, as will be said later."³²
영신수련 책 시작 부분에 이나시오 성인은 그가 이해한 것들이 하느님께서 자신 안에 영감을 불러 넣어주신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그 덕분에 그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 "영신 수련이란 양심을 살피는 방법이나 묵상, 관상, 염경, 묵도등의 방식 및 다음에 말할 다른 영신적 방법들을 말한다."³²
42. For Ignatius the Exercises are the different ways of "exercising" the spirit. He justifies his definition saying: "*For, as strolling, walking, and running are bodily exercises, so 'spiritual exercises' is the name given to every way of preparing and disposing one's soul to rid herself of all disordered attachments, so that, once rid of them one might seek and find the Divine Will in regard to the disposition of one's life for the good of the soul*".
이나시오에게 영신수련은 영을 "운동"시키는 다른 방법들이다. 그는 명확하게 정의내린다. "산책이나 길 걷기나 뛰기등 모든 것을 신체의 단련이라 하듯이 영신 수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깨끗이 개선하여 날카로운 양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 영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든 방법이다."
43. Therefore, for Ignatius it is clear that just as a body, which is not exercised loses its agility and movement, so it is with the spirit, which needs exercise to give its best and satisfy its deep longing for fulfilment.
그러므로 이나시오에 의하면 몸의 민첩함과 움직임을 잃지 않도록 운동하는 것처럼 영에게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성취를 위한 깊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운동을 필요로 한다.
44.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faithful to the Ignatian spirit which inspires it, wants its members to be agile in spirit, exercising themselves constantly to hear God's calls and responding promptly with their whole being.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영감을 불러 넣어주는 이나시오적 정신에 충실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단련하고 즉각 자신의 존재 전체로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첩해지기를 원한다.
45. The original experience of the complete Spiritual Exercises, as conceived by St. Ignatius, covers a period of approximately one month, spent in silence, speaking only with a guide or spiritual companion. In this context, it is possible for the exercitant to experience, as proposed by Ignatius, the different ways of praying, of examining oneself and of contemplating, of reflecting and drawing "profit", thus becoming sensitive to what the Lord wants in terms of vocation and apostolic action.
이나시오 성인에 의해 착상된 영신수련은 본래 약 한 달동안 인도자 혹은 영적 동반자와의 대화 외에는 침묵 속에서 지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피정자는 성 이나시오께서 제안하신 여러가지 다른 방법의 기도, 자기성찰, 관상, 숙고 등을 거쳐

³² SpEx 1. 영신수련 1

"이로운 점"을 이끌어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성소와 사도적 활동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게 된다.

46. In the course of the four weeks of the Exercises, after having confronted him/herself as a sinner loved by God, the retreatant is placed before the person of Jesus Christ, with whom he/she will continue to grow in intimacy, disposed to be and to do in the world what Jesus is and does, even accepting the consequences of this.

4 주간의 영신수련 과정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인으로서 자신을 대면한 후, 피정자는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된다. 예수님 앞에서 피정자는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되며, 예수님께서 사시며 일하시는 세상 속에 존재하며 일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조차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47. Already in the time of Ignatius, and with even greater reason in the modern circumstances of life, it is often not possible, especially for the laity, to make the experience of the Exercises in thirty days. For this reason the Exercises can be adapted to the different circumstances of each person, being made in shorter steps or in daily life, but seriously, without overlooking any of the steps of the Ignatian itinerary. These Exercises, adapted by stages or in ordinary life, are truly an Ignatian experience.

이미 이냐시오 성인 시대나 현대 삶의 상황에서, 평신도에게 30 일간의 영신수련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이냐시오의 일정의 각 단계를 간과함이 없이 진지하게 다룰 수 있다면, 영신수련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 일상생활 또는 짧은 단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피정자의 수준이나 일상생활 안에서 적용된 이러한 영신수련이야말로 참으로 이냐시오적인 경험이다.

48. Once made and assimilated, the main fruit produced by the Spiritual Exercises is a new style of life. What has been lived throughout the four weeks - in terms of closeness to the person of Jesus and his way of life, in terms of learning to discern the movements of the Spirit in daily life, in terms of becoming "contemplative in action" - all this reshapes the lifestyle of the person causing him/her to be and act more in keeping with the desires of the Lord for the building of His Reign.

영신수련을 마치고 그 정신에 동화되었다면, 영신수련이 지어내는 주된 열매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가까워지고, 일상생활 안에서 영의 움직임을 식별하고, "활동중의 관상가"가 되는 관점에서 4 주간을 통해 체험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피정자로 하여금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더 철저하게 따르게 하며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바꾼다.

49. CLC hopes that its members are people of prayer, able to listen to the desires of the Lord, able to discern among the many calls of life what is best suited for the building God's Reign. For this reason, CLC puts at their disposal the school of the Exercises, which according to the letter of Ignatius to Manuel Miona are, *"all the best that I have been able to think out, experience and understand in this life, both for helping somebody to make the most of themselves as also for being able to bring advantage, help and profit to many others"*.³³

³³ November 16, 1536. 1536년 11월 16일

CLC 는 회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삶으로 부르시는 여러 부르심 안에서 식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이유로 CLC 는 영신수련의 학교를 회원들에게 맡긴다. 이냐시오 성인께서 마누엘 미오나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 영신수련의 학교는 “사람들이 자신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최상의 것이다.”³³

50. For CLC members, therefore, the Spiritual Exercises are not an optional experience, to be made or not, or, that once made, belong to the archives of the past. They are a basic, vitalizing experience constitutive of their very vocation. An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to which it will always be necessary to return and whose effect on each person needs to be nourished and renewed constantly.

따라서 CLC 회원들에게 영신수련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한번 하고 과거의 창고에 넣어두는 것도 아니다. 영신수련은 기초이며, 회원의 성소 자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경험이다. 반면에 영신수련의 경험은 CLC 가 항상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경험이며, 각 회원에게 미치는 영신수련의 결과는 끊임없이 깊어지고 쇠신될 필요가 있다.

51. The Exercises are not an experience with which the apostolic life reaches a climax but rather an initial, decisive experience for a personal apostolic option, which is then lived for the rest of one's life.

영신수련은 사도적 삶이 절정에 이르는 하나의 경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여생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개인의 사도직 선택에 있어서 시발점이며 결정적인 경험이다.

5.1.1. Levels of God's call 하느님 부르심의 단계들

- **THE FATHER'S call to life: The splendour of being human**
하느님께서 생명으로 부르심: 인간존재의 숭고함

52. When the Father creates us, He calls us, men and women, to live fully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³⁴, to be fruitful and multiply, to fill the earth and conquer it and to recognise the fundamental good in all things. Finally, the New Testament reveals all the splendour of the human being who, created in Christ, is called to divine life in communion with the Father, through the Son, in the Spirit of love.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³⁴을 충만히 살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며, 모든 것 안에 있는 근본적인 선을 인식하도록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인간이 사랑의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와 일치하는 신적인 삶에 불림을 받고 있다는 인간의 숭고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³⁴ Gen 1:26-30 창세기 1,26-30

53.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reminds us that we are called to be in dialogue, recognizing the gifts and presence of God in everything – whether in health or sickness, riches or poverty – and to respond, like Jesus, with praise, reverence and service.³⁵

원리와 기초는 우리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든 간에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현존을 인식하며 대화를 하도록 불림을 받았으며, 예수님처럼 찬미와 흠승과 봉사로써 응답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³⁵

54. The *First Week* leads us to confront both, God's design for us and the reality of sin and death, the distinctive features of our personal and collective existence. In the Dialogue of Mercy, we recognize and humbly acknowledge our sinfulness and then, full of confidence and gratitude, receive the forgiveness of God, who saves us through Jesus Christ. The experience of the love of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to give us new life in His Spirit, invites the exercitants to ask themselves, "What can I do for Christ?" and to continue on into the Second Week.

첫째 주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존재의 특징적인 모습인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도록 이끈다. 자비를 구하는 담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스러움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완전한 확신과 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상에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체험은 죄정자들로 하여금 둘째주간에 들어가기 앞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초대한다.

55. Each day we extend this living dialogue with an *examination of conscience*, in which we acknowledge the benefits received from things, people and events.³⁶ This is a way of living day after day the Contemplation to Attain Love, which urges us to ask "... for interior knowledge of all the good I have received, in order that ... I may be able to love and serve His Divine Majesty in everything"³⁷

매일 우리는 양심성찰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계속해 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물들과 사람들과 사건들로부터 받은 유익을 깨닫는다.³⁶ 이것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을 매일 살아가는 길이다.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 안에 있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함하여... 하나님께 받은 무수한 은혜를 알기를 구하도록"³⁷ 요청한다.

• **JESUS CHRIST calls us to be with Him and to follow Him**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신다

56. The experience of being saved by Christ and freed from the slavery of sin,³⁸ invokes in us the desire to put ourselves entirely at His service and to listen to His call to work with Him in

³⁵ SpEx 23. 영신수련 23

³⁶ SpEx 43. 영신수련 43

³⁷ SpEx 233-234 영신수련 233-234

³⁸ SpEx 53. The first week of the Exercises is usually called the "week on si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call it the "week on mercy", the "week on salvation". In fact, the focus of this first week is the experience of God as Saviour and Redeemer, and the experience of oneself as one who has sinned and has been forgiven. This revelation occurs through the figure of the crucified Christ (SpEx 53). Before Him, St. Ignatius teaches us to ask: What have I done? What am I doing? What will I do for Christ? To those who were lost or locked into the dark abyss of self, salvation is presented as a door out of the self, a voyage towards the other. The sin in which we

building His Reign. -.³⁹ In fact, the eternal King calls us to stay and work with Him, to follow Him in His suffering and in His glory. To stay with Jesus and to follow Him in His work of establishing His Reign is the one and indivisible choice. To follow the Lord means wanting to know Him better, to love Him more intensely and to follow Him more closely in His mission.⁴⁰ This is the objective of all the Contemplations in the Spiritual Exercises.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체험은 ³⁸ 하느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함께 일하자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전적으로 그분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킨다.³⁹ 사실, 영원하신 임금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일하며, 그분의 고통과 영광 안에서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유일한 선택이며 가시적인 선택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분의 사명 안에서 그분을 보다 친밀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이것이 영신수련 안에 있는 모든 관상의 목적이다.

57. This option for Christ and to work for His Reign means, in Ignatian Spirituality, opting for the whole Christ. To know, to love and to serve His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to love more intensely and follow more closely the Christ who is "the true life".⁴¹ It is also to exalt Him and to contribute to the reconciliation of everything to Him and in Him, so that the Father may be all in all.⁴²

이나시오 영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이러한 선택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형제 자매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는 것이다.⁴¹ 이는 또한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이며, 그분에게, 그분 안에서 만물의 화해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성부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⁴²

58. CLC is wholly imbued with this great option: the desire to follow Jesus Christ more closely and work with Him for the building of His Reign.⁴³

were lost or into which we were locked now resounds as an offering of liberty and salvation, a call of the Eternal King. To respond to it not only with judgement and reason but also with entire surrender is the way of liberation for men and women.

영신수련 53. 영신수련의 첫째주간은 주로 “죄의 주간”으로 불려진다. 그것은 “자비의 주간” “구원의 주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사실 이 첫째주간의 초점은 하느님을 구원자로, 자신을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자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벌어진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성 이나시오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가 이제는 자유와 구원의 제공, 영원한 임금의 부르심으로 울린다. 판단과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굴복으로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해방의 길이다.

³⁹ SpEx 95. 영신수련 95

⁴⁰ SpEx 104. 영신수련 104

⁴¹ SpEx 139. 영신수련 139

⁴² 1 Cor 15:28 고린도 1 서 15, 28

⁴³ GP 4. 정관 4

CLC 는 보다 가까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분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원의라는 이 위대한 선택으로 온전히 고취되어 있다.⁴³

- **THE HOLY SPIRIT moves us to greater fidelity in following Christ**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끄신다

59. Ignatius was a teacher who learned from experience. His spirituality is not based on abstract principles of perfection but on the concreteness of God, close and transcendent, who we experience in life. Those, making the Exercises, must prepare themselves to make the most important decision, "*of finding that state of life which God our Lord proposes for us*"⁴⁴, using a very concrete methodology: contemplating Christ's life, and at the same time being attentive and alert to their own feelings and interior movements through which the Holy Spirit speaks to them and moves them.

이나시오는 체험으로부터 배웠던 스승이다. 이나시오의 영성은 추상적인 완덕의 원리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가깝고도 초월적인 하느님의 구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신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삶의 양식을 발견하려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여야 한다.⁴⁴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상하며 동시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인 자신의 느낌과 내적인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60. The experiences of consolation and desolation and of various spirits⁴⁵ also play a fundamental role in Ignatian elections. The group of Meditations and the Rules for making an election⁴⁶ are aimed at clarifying these experiences and thus leading to a discernment. But, they are always concerned with actual experiences and not abstract wishes, because Ignatius is satisfied only if "*without any intermediary, the Creator deals with His creature, and the creature with the Creator and Lord*"⁴⁷.

위안과 고독의 체험과 여러 영들에 대한 체험은⁴⁵ 또한 이나시오적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선택을 하기 위한 묵상과 지침들은⁴⁶ 이러한 경험들을 분명하게 하여 마침내는 식별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들은 추상적인 바램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나시오는 오직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을 중간매개 없이 직접 다룰 때, 그리고 피조물이 그 창조주와 주님을 직접 대할 때”에만 만족할 수 있었기⁴⁷ 때문이다.

5.1.2. Stages in the discernment of vocation 성소식별의 단계들

61. Ignatius speaks of making a sound and good "**election for one's life and state**". This "election" should be a free and generous reply on our part to a "vocational call" from God. Ignatius shows

⁴⁴ SpEx 135. 영신수련 135

⁴⁵ SpEx 176. 영신수련 176

⁴⁶ SpEx 135-168; 169-189. 영신수련 135-168, 169-189

⁴⁷ SpEx 15. 영신수련 15

us the way to dispose ourselves, interiorly, to listen to the call of the Lord and how to behave depending on the manner in which God makes Himself heard.

이냐시오는 “**사람의 생활과 상태를 바람직하게 잘 선택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선택”은 우리 편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고 관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이냐시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배려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62. We can distinguish between two objectives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구별할 수 있다.:

- ▶ To discern "a state of life": a lay life (in CLC or somewhere else), the priesthood or religious life.
- ▶ CLC 안에서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평신도의 삶, 사제의 삶, 수도자의 삶이라는 “삶의 양태”를 식별하는 것.
- ▶ to discern "a lifestyle".⁴⁸ A key element in this discernmen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and his/her possible life-contexts: family, friends, community, study, or work... Not every context is suitable for personal growth, nor for the growth in freedom needed to discern a lifestyle. We need to facilitate this discernment amongst lifestyles that foster growth. Often, development comes to a standstill because of a lack of care in the first stages.
- ▶ “생활양식”을 식별하는 것.⁴⁸ 이 식별에서 중심되는 요소는 가족, 친구, 공동체, 학업 혹은 일이라는 각자의 생활의 맥락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모든 맥락이 인격적 성장에 적합한 것도 아니고 생활양식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의 성장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생활양식 속에서 이 식별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첫 번째 단계 안에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성장이 지체되기도 한다.

63. Discernment of vocation is a process, with stages, which it is essential to follow and understand. These stages are not linear, but there is between them a dynamic movement of grace and freedom.

성소식별은 일련의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한 단계를 따르고 이해하는 것이 성소식별에는 필수적이다. 이 단계들은 직선형이 아니다. 각 단계들 사이에는 은총과 자유라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

64. First, we must have a proper *disposition*, by adopting particular spiritual attitude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of a good election

첫째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특별한 영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적절한 *내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 Assimilating Christ's criteria.⁴⁹
그리스도의 기준에 동화되는 것⁴⁹

⁴⁸ SpEx 189. 영신수련 189

⁴⁹ The Two Standards (SpEx 136-148) 두개의 깃발 (영신수련 136-148)

- ◆ Making decision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⁵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림⁵⁰
 - ◆ Having our affections centred on God, by loving Jesus with a free and fervent heart
자유롭고 열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애정이 하느님이
중심으로 자리잡음
65. • in the "first degree of humility", making a fundamental choice: "*...that in everything I obey the law of God, so that, even if my own life on this earth were at stake, I would not deliberate about breaking a commandment...which binds me under mortal sin.*"⁵¹
근본적인 선택을 하는 “겸손의 첫째 단계”는: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주
천주의 계명에 순종하기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힘을 다 해서 나를 낮추고 또
겸손케 함이니...내 자신의 육신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범하면 대죄가 되는
하느님의 계명이나 사람의 계명 하나라도 일부러 거스르기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⁵¹
66. • in the "second degree of humility", feeling detached and free with regard to all created things, to the point of not being able to envisage under any circumstance a venial sin, so as to knowingly resist God's call even in a small thing.⁵²
모든 피조물을 대하면서 애착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겸손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죄를 범하지 않으며 고의로 사소한 것에서 조차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⁵²
67. • in the "third degree of humility", seeking the *magis* with a growing identification with the Spirit of the poor and humble Christ⁵³
“겸손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난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와 더 하나가 되어 **보다
더(마지스)**를 구한다.⁵³
68. On the other hand, we must search carefully for manifestations of the Lord's will
반면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주의깊게 찾아야 한다.
- ◆ by reflecting, in His presence, on the objective of the election and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hoice in the light of faith
주님의 현존 안에서 선택의 목적을 성찰하고, 신앙의 빛 안에서 각각의 선택이 갖는
이점과 불리함에 대하여 성찰함으로써.

⁵⁰ The Three Classes of Persons (SpEx 149-157)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영신수련 149-157)

⁵¹ SpEx 165. 영신수련 165

⁵² SpEx 166. 영신수련 166

⁵³ SpEx 167. 영신수련 167

- ◆ by remaining attentive to the movements of spirits and their effects (consolation or desolation) for discerning which way the Lord is moving us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쪽으로 이끄시는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영들의 움직임과 그 영향(위안이나 고독)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 ◆ by praying with fervour to the Lord to make His will known.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5.1.3 Prepar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election made in the Spiritual Exercises 영신수련중의 선택을 위한 준비와 확증

69. According to Ignatian tradition, the Spiritual Exercises constitute the best time for discerning our vocation. However, as Ignatius knew well, we cannot make the Exercises with a view to choosing our state of life without preparing well. This preparation can last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but should not carry on indefinitely, lest the election becomes impossible. Although, the Third and Fourth weeks of the Exercises are already a time of confirmation of the election in the Second week, it is good also to have the time necessary to confirm and make more explicit the Lord's call, through what happens to us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our contact with the world.

이나시오의 전통에 따르면 영신수련은 우리의 성소를 식별하는 최선의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나시오 성인이 잘 알고 있었듯이, 우리는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영신수련을 할 수 없다. 이 준비는 적당한 기간에 걸쳐 벌어질 수 있으나 무한정 진행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은 불가능해진다. 비록 영신수련의 셋째주간과 넷째주간은 둘째주간 중에 선택하였던 것을 확증하는 시기일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더 명백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70. In the preparation, as well as during the confirmation period, Ignatius invites us to place ourselves in different situations, which he calls experiences or probations, and to be accompanied spiritually by someone who can help us to discern the call of the Lord.

확증의 기간 처럼 준비기간 중에 이나시오 성인은 경험 또한 실습시기(probation)라고 부르는 다른 상황들을 대면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식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동반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5.2. The use of experiences or probations 경험들 이나 실습시기의 사용

71. As preparation for the Exercises involving an election, these experiences are not only of real service, but they can above all place a person in a favourable context for becoming aware of new calls from the Lord. As a preparation and confirmation of an election,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of any spiritual movements and their effects, as St. Ignatius suggests in *the second time* for making a good election.⁵⁴

선택을 하기위한 영신수련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경험들은 실제적인 봉사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의 새로운 부르심을 알아차리는데 좋은 맥락 속에 피정자를

⁵⁴ SpEx 176. 영신수련 176

위치시킬 수 있다. 선택에 대한 준비와 확증으로서, 이냐시오 성인이 좋은 선택을 위한 *둘째 시기*⁵⁴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적 움직임들과 그 결과들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72. In these experiences, which can be such as to move us deeply⁵⁵ we seek to become vulnerable to the will of the Lord both in the community and by means of the community. This vulnerability prepares us for, and its consequences confirm us in, the election we have made.

우리를 더욱 깊게 인도해 줄 수 있는⁵⁵ 이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뜻에 개방되기를 추구한다. 이러한 개방은 우리가 하는 선택을 준비시켜 주며 개방의 결과는 우리가 내린 선택 안에서 확증을 시켜준다.

73. Some possible areas of experiences:

경험이 가능한 부분들:

- ◆ Experiences of exposure to the world of suffering and poverty, 고통과 가난에 가득찬 세상에 노출되는 경험
- ◆ Participating in apostolic and service activities in situations different from the usual protected ones, to experience our own qualities and poverties and, above all, to be able to live in depth the free gift of oneself.
우리 자신의 고유한 자질과 가난함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저 주어진 자기 자신이라는 선물을 깊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보호받고 있는 상황과는 다른 당황 속에서 사도직과 봉사활동에 참여함
- ◆ Undertaking studies and formation programmes with a clear apostolic intention: only to "help souls..."
오직 영혼을 돕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사도적 지향을 가진 학습과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함
- ◆ A school of prayer as preparation for the experience of the Exercises, beginning with spiritual guidance, participating in retreats and light Exercises etc.
영적 지도로 시작하여 피정과 가벼운 영신수련등에 참여함으로써 영신수련을 준비하는 기도의 학교.

74. The choice, of experiences or probations and the way of presenting them, will depend on the stage of vocational discernment at which the person has arri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age of the individual discerning his or her vocation to CLC. For adult laity, with an already defined state of life, the experiences suggested would be different from those proposed to young people, whose vocational discernment will be on their state of life.

경험들이나 실습 그리고 그것들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은 개인이 도달해 있는 성소식별의 단계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CLC 성소를 식별하는 개인의 나이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미 삶의 양식이 규정된 성인 평신도들에게 제안되는 경험들은 성소식별이 자신의 삶의 양식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제시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⁵⁵ "realizing and relishing" (SpEx 2). "깊이 깨닫고 맛보는것" (영신수련 2)

5.3. Individual spiritual guidance 개인적인 영적지도

75. Spiritual guidance is not about asking for advice, even less for asking what we should do. It is a matter of sharing our experiences with someone in order to hear better what God is saying and what He wants. Occasionally the guide can provide clarification or offer advice, but these occasions should be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Spiritual guidance is an indispensable part of searching and finding one's true vocation.⁵⁶ It is particularly useful before and after the yearly Exercises.

영적 지도는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묻는 것도 아니다. 영적 지도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가끔 지도자가 설명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규범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것이다. 영적 지도는 한 개인의 참된 성소를 추구하고 발견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⁵⁶ 그것은 년차 영신수련 전후에 특히 유용하다.

B. AVAILABILITY FOR MISSION 사명을 위해 준비됨

1. THE MEANING OF MISSION 사명의 의미

1.1. The mission of Jesus⁵⁷ 예수님의 사명⁵⁷

76. In the Gospels, especially in that of John, Jesus is presented as the One sent by the Father. Being sent is precisely what gives sense to His life and His presence among us, so that we can't understand the person of Jesus except through this mission that the Father has entrusted to Him. On the other hand, mission is not something belonging to Jesus; it is a gift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⁵⁸

⁵⁶ Spiritual guidance presupposes above everything a mutual trust, which manifests itself in an openness of heart to the spiritual guide and requires absolute discretion.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guide to have assimilated thoroughly the Annotations (SpEx 1-20), to be familiar with the spiritual growth process and the requirements of an apostolic vocation. It is important that the promotion of justice and intercultural dialogue, as an essential dimension of evangelisation, be integrated in his or her own life.

영적 지도는 무엇보다도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영적 안내자에 대한 마음의 개방에서 드러나며 절대적인 분별성을 요구한다. 영적 지도자가 영신수련의 일러두기(#1-20)를 완전히 숙지하고, 영적 성장 과정과 사도적 성소의 필요조건들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복음화의 본질적인 차원인 정의 구현과 문화간의 대화가 자신의 삶 안에서 통합되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⁵⁷ The starting point of mission is the relationship with Jesus. Jesus is present, not only in our own hearts, but also in His Body, of which our local CLC group is a cell; and furthermore, He is present in those to whom we are sent - family, friends, work-place, the wider community, especially those in need. Consequently, mission comes alive and energises us when this three-fold presence of Jesus resonates and interacts - Jesus present in our heart; Jesus present in our CLC group; Jesus present in those to whom we are sent.

사명의 시발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CLC 지역 공동체가 세포인 예수님의 몸 속에 현존하신다. 게다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파견된 곳이나 사람, 즉 가정, 친구, 직장, 더 큰 공동체,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 현존하신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CLC 공동체, 우리가 파견된 곳,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 걸친 예수님의 현존이 공명(共鳴)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사명을 활기를 얻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⁵⁸ "I have come from heaven not to do my own will but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Jn 6:38; Jn 4:34; 5:30; 9:4-5; 14:24).

복음서, 특히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파견을 받으신 분으로 제시된다. 파견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사명은 예수님께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다.⁵⁸

77. Jesus lives this mission in total communion with the Father.⁵⁹ For this reason, the most intimate reality of Jesus is being Son. His life is the Father's, given to Him by the Father.⁶⁰ It is a life He will give to humankind, thus believers will be those who live with the Son's life.⁶¹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하여 이 사명을 사셨다.⁵⁹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가장 깊은 실체는 아드님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삶이다.⁶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실 삶이며, 그리하여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⁶¹
78. The mission of Jesus the Son is that which the Father has entrusted to Him. Jesus knows that He is not the proprietor of this mission: He has not come into this world "on His own" but in order to carry out His mission, because the Father and He are one, and live in full communion with the Spirit (God is Trinity and is Communion).⁶²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사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고, 성령과 완전한 일치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고 친교이시다.)⁶²
79. The precise object of this mission will be that all men and women, beloved of the Father, become one with the Triune God: even now we are called to live in the fullness of God Himself.⁶³ Jesus is the messenger and, at the same time, the message.⁶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한 6,38; 4,34; 5,30; 9,4-5; 14,24)

⁵⁹ “He who has sent me is with me...”(Jn 8:29; 3:35; 17:7-8; 5:1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요한 8,29; 3,35; 17,7-8; 5,19)

⁶⁰ “For, just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e has granted the Son also to have life in Himself” (Jn 5:26).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 5,26)

⁶¹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draw life from the Father, so whoever eats me will also draw life from me” (Jn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

⁶² Jn 10:30, 38; 11:41-42; 13:1-3; 13:9; 14:20; 16:28 요한 10,30; 10,38; 11,41-42; 13,1-3; 13,9; 14,20; 16,28

⁶³ “... so that the love with which you have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Jn: 17:21, 24, 26).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21; 17,24; 17,26)

⁶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n 14: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6)

이 사명의 명확한 목적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삼위의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충만성 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불림받고 있다.⁶³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이며 동시에 메시지이시다.⁶⁴

1.2. The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사명

80. The Church is *"the congregation of all those who in faith look upon Jesus as the author of salvation and the source of unity and peace"*; *"founded and built by God to be a visible sacrament of this saving unity"*.⁶⁵ The Church is the sacrament of salvation in the concrete history of our world.⁶⁶

교회는 “구원의 창조자이시며, 일치와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원의 일치가 가시적인 성사가 되도록 하느님에 의해 세워졌다.”⁶⁵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체적인 역사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성사이다.⁶⁶

81. Through the action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 represents the hands and feet of Jesus, Risen and Alive. The Church carries out the same mission as the Son. The Church is the sacrament of the mission of the Son who, moved by the Spirit, journeys through history towards the fullness of communion of all with Christ and, in the same Spirit, towards fullness of life with the Father. If it were not for the Son's mission, the Church would be nothing, it would lose its meaning.⁶⁷

성령의 활동을 통해 교회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상징한다.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수행한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아드님의 사명에 대한 성사이며, 만인이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또 같은 영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완전한 삶을 향한 역사의 여정을 걸어간다. 만약 그것이 아드님의 사명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의미를 잃고 아무 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⁶⁷

1.3. Sacramental dimension of mission 사명의 성사적 차원

82. Jesus is the sacrament of the Father's love; the Church, the sacrament of Jesus, is life and salvation for all humanity. The call of the Father, born out of love, is carried out and is efficacious in Jesus and in His mission; the call of Jesus, for love, is carried out and is efficacious in the Church and in Her mission. And this mission of the Church develops in the mission of those called and gathered by the love of the Father towards the Church.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성사이다; 예수님의 성사인 교회는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과 구원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그의 사명 안에서 수행되고 효과를 발휘한다. 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 안에서 수행되고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사명은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부름을 받고 모인 이들의 사명 안에서 발전한다.

⁶⁵ Lumen Gentium 9 인류의 빛 9

⁶⁶ LG 1 인류의 빛 1

⁶⁷ Jn 17:17 요한 17,17

83. Each Christian is above all someone grasped by the love of God. That link with the Lord (vocation) will take on concrete form and will develop and be efficacious precisely when Christians receive the Spirit and are sent - on mission - to the world in and through the Church.

각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이다. 주님과 그의 그러한 연결(성소)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파견될 때 구체적인 형식을 띠게 될 것이고, 발전할 것이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84. In agreement with the specificity of each of the charisms, which arise in the Christian community, the Church entrusts the mission of Jesus to all Christians. To be truly mission, it has to be expressed by means of specific signs. The mission entrusted by the Father is realized through us, the body of Jesus. The mission entrusted by Jesus is carried out through the members of the Church. The mission of each member of the faithful and each group of faithful, community, and local church is carried out through visible signs that are proportionate to each situation. Each ecclesial charism will express "missioning" in its own specific way.⁶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각 카리스마의 특이성에 따라,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위탁한다. 진정한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표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실현된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교회의 일원을 통해 수행된다. 개개 신자와 각 신앙 공동체와 지역교회의 사명은 각 상황에 적절한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 수행된다. 교회의 각 카리스마는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사명”을 드러낼 것이다.⁶⁸

85. Mission implies that someone sends and that someone is sent to implement the very mission of Jesus in and through the Church.

사명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파견하는 이가 있고 파견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Prophetic dimension of mission 사명의 예언적 차원

86. The mission of Jesus is explained and understood in New Testament writings as a prophetic mission. Jesus is "the prophet" *par excellence*⁶⁹, who through His words and His behaviour (word + action) carries out the mission that the Father has entrusted to Him. The mission is not

⁶⁸ The charism of lay associations is expressed through being *sent on mission* through a process of communal discernment and through concrete forms that are in themselves distinctive. Regarding the charism of religious life, it expresses its mission by a discernment related to the vow of obedience. In both instances, it presupposes searching for the will of God and fulfilling it as Church mission.

평신도 단체의 카리스마는 공동체 식별의 과정이나 독특한 구체적인 형식을 통하여 사명을 받아 파견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수도생활의 카리스마일 경우에는 순명의 서원과 관련된 식별로 그 사명을 표현한다. 둘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교회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⁶⁹ "... mighty in deeds and word ...the one to redeem Israel (Lk 24:19-21; Lk 4:24; Lk 7:16; 13:33; 24:19; Mk 1:22; 6:2; Mt 16:14; 21:11-14).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이 있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simply a way of thinking or a way of being in the world, but rather *specific actions*⁷⁰ and *words*.⁷¹ Jesus' disciples are called to behave as prophets, as Jesus teaches them.⁷²

신약성서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예언적 사명으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신 탁월한 “예언자”⁶⁹ 이시다. 사명은 단순히 사고방식이나 세상에서의 존재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과⁷⁰ 말이다.⁷¹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언자의 역할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다.⁷²

87. Every Christian is consecrated⁷³ for this prophetic mission. This is the sense of the anointing in the rite of baptism.⁷⁴ The Holy Spirit anoints the person being baptized and seals the person with an indelible seal.⁷⁵ With this anointing, the Christian can repeat the words of Jesus: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and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⁷⁶ Thus, by the washing of Baptism and the anointing with chrism, the baptized person shares in the mission of Jesus Christ, our Saviour and Messiah.⁷⁷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언적 사명을 위해 성별되었다.⁷³ 이것은 세례예식 때 행하는 도유의 의미이다.⁷⁴ 성령께서는 세례자에게 도유를 하시고 지울 수 없는 인호를 찍어주신다. 이 도유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⁷⁰ “Jesus gave them authority over unclean spirits with power to drive them out and to cure all kinds of disease and all kinds of illness.” (Mt 10: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 내고 모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마태오 10,1)

⁷¹ “Father consecrate them in truth; your word is truth ... on behalf of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word.” (Jn 17:17, 20; Mk 6:30)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요한 17,17; 17,20; 마르 6,30)

⁷² Mt 10:40-42 마태오 10,40-42

⁷³ Consecration signifies that God takes possession of what is destined for a specific mission. In the OT, kings were consecrated to God by anointing their heads with oil.

성별(consecration)은 하느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쓰시려고 소유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구약성서에서 왕들은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 하느님께 성별되었다.

⁷⁴ “Omnipotent God... I consecrate you with the chrism of salvation, so that incorporated into his people, you may always be a member of Christ, priest, prophet and king for all eternity” (Ritual of baptism, the anointing with holy oil.) “전능하신 하느님... 나는 당신에게 구원의 성유 크리스마를 발라드립니다. 이에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세례예식서, 성유로 바름)

⁷⁵ 2 Cor 1:21-22 고린도 II 1,21-22

⁷⁶ Lk 4: 18-19; Is 61:1-2 루가 4,18-19; 이사야 61,1-2

⁷⁷ ChL 13. 평신도 그리스도인 13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⁷⁶ 라는 말씀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례로 씻김을 받고 성유로 도유됨으로써,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유한다.⁷⁷

1.5. Vital Dimension of mission 사명의 증대한 차원

88. Being a Christian implies being a disciple and therefore to have received the prophetic mission, a mission that has many facets. At times, the most important is to communicate hope and the meaning of life to the men and women of our world, but there is no doubt that in many cases it will also mean denouncing and speaking out without fear. This presupposes a way of living and thinking, a way of facing life's challenges in our family, social, political and professional contexts. Therefore, it is not enough to be simply there; Christians are there as prophets, to announce with actions and words the presence of the Reign of God.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많은 양상을 지지고 있는 예언적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두려움 없이 고발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우리의 가정, 사회, 정치와 전문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위로 하느님 다스림의 현존을 알리는 예언자로 그곳에 존재한다.

1.6. Mary, model for mission 사명의 모형이신 마리아

89. In God's design, Mary held a key role in making the Son's mission possible⁷⁸. Mary was chosen by God's immeasurable love. She was called (vocation) and sent to fulfil the mission of giving birth to the Son for our world.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마리아는 성자의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임무를 맡았다.⁷⁸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선택되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성자를 낳는 사명으로 불림을 받고(성소) 완수하도록 파견되시었다.

90. Mary welcomed the call and immediately set out (action) to bring the good news (word) to Elizabeth. The welcoming of the mystery marked her life.⁷⁹ She was, above all, the first believer, the first Christian.⁸⁰ In Mary, the hopes and desires for salvation that the poor had placed in

⁷⁸ GP 9. 정관 9

⁷⁹ Lk 2:19, 51 루가 2,19; 51

⁸⁰ Lk 1:45 루가 1,45

God's love, are fulfilled. Mary was the "poor of Yahweh"⁸¹, who, in the midst of her real poverty, put her hope in God alone. Her lifestyle, poor and simple, was a prophetic gesture.⁸²

마리아께서는 부르심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즉시 엘리사벳에게 복음(말씀)을 전했다(행동).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리아의 삶의 특징이 되었다.⁷⁹ 마리아께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신자이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셨다.⁸⁰ 마리아 안에서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 사랑 안에 위치하는 구원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 완성되었다. 마리아께서는 자신의 실제적인 가난 속에서 오직 하느님께만 희망을 둔 "야훼의 가난한 자"⁸¹ 이셨다. 가난하고 단순한 마리아의 생활방식은 예언적인 몸짓이었다.⁸²

2. THE CLC MISSION FIELD; CLC 사명의 영역

91. Conforming to the direction given by Vatican II, the mission of the laity within CLC is not to be understood in a restrictive sense or by establishing dichotomies. The CLC field of mission is unlimited. It extends to the Church and to the world, in the service of individuals and of society, in an effort to reach the heart of each individual and to change unjust structures by bringing the Gospel to everyone and every situation and circumstance.⁸³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CLC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은 제한된 의미로 이해되거나 이분화시켜서는 안된다. CLC 사명의 영역은 한계가 없다. CLC 사명의 영역은 개인과 사회에 봉사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과 처지에 복음을 가져옴으로써 불의한 제도를 변화시키고 각 개인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노력에 있어서 교회와 세상에로 확장된다.⁸³

92. Given the lay character of the CLC vocation and given today's world situation, marked by serious structural injustice and by the marginalization of a large part of the human family which lives in poverty and misery, the service to which CLC is called to give priority, in the light of its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is the *promotion of justice*.

CLC 성소의 평신도적인 특성과 또한 대부분의 인류가 가난과 비참함 속에 살면서 소외되고 심각한 구조적 불의가 만연한 오늘날의 세계 상황 때문에, CLC 가 우선 순위를 두고 불림을 받고 있는 봉사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맥락 안에서 정의 구현이다.

93. It is the love of God, which prompts us, as members of CLC, to transform the world so that all God's children can live with dignity. We should try to see Jesus in every man and woman, because Jesus identified Himself with each, especially with those most in need. Commitment to the cause of freedom and justice makes sense for us only so long as the Spirit of Christ motivates it, as an expression of faith and love.

⁸¹ This is the sense of the Magnificat, which gathers together and summarizes the expectations of all the poor (Lk 1:46-56). It is inspired by the song of Hannah, a young woman who hoped only in the action of God (1 Sam 2:1-10).

이것이 모든 가난한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요약한 마니피캇의 의미이다 (루가 1,46-56).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역사에만 희망을 둔 젊은 여인인 한나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았다 (사무엘상 2,1-10).

⁸² Lk 10:21; Mt 11:25-27; Mt 10:4 루가 10,21; 마태오 11,25-27; 마태오 10,4

⁸³ GP 8. 정관 8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CLC 회원인 우리를 재촉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각 개인, 특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노력해야 한다.⁸⁴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신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것을 신앙과 사랑의 표현으로 만들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94. Work for justice takes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region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and different socio-political situations. However, this priority must show itself in our style and standard of living. In the Spiritual Exercises, we ask for the grace to follow Jesus, poor and humble, and our hope is to obtain this grace from the Lord. To *believe* in Jesus, therefore, means to follow Him more closely; to share His poverty means to live a life of faith, which promotes justice and takes an option for the poor. A simple lifestyle safeguards our apostolic freedom, expresses our solidarity with the poor and makes our faith credible. This option cannot remain theoretical. Ignatius, speaking of poverty, asks of Jesuits that "*...all should when occasions arise, feel some effects of it*".⁸⁵

정의를 위한 활동은 지역과 문화적 환경, 상이한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하지만 이 우선 순위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기준(style and standard of living)안에 드러나야 한다. 영신수련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은총을 청하고, 우리의 희망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가난을 나눈다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생활양식은 우리의 사도적인 자유를 지켜주며,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선택은 이론적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가난에 대하여 말할 때,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회원들에게 “...상황이 벌어질 때 모두가 어느정도 가난의 영향을 느껴야 한다” 라고 요구하신다.⁸⁵

95. The promotion of justice is, therefore, integral to the larger context of evangelisation, the proclaiming of Jesus Christ and His Reign.

따라서 정의구현은 복음화라는 큰 맥락,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스림에 대한 선포가 중심이 된다.

3. DEVELOPMENT OF MISSION IN CLC CLC 사명의 발전

96. As community, CLC receives a specific charism (Ignatian) at the service of the Church's mission. It is expressed by the sending of its members on mission, the fruit of communal apostolic discernment, on specific forms of apostolate. It will not always be easy to do so, but one thing is certain: those who have opted for the Ignatian charism are, above all, apostles on the Church's mission and therefore they are sent by the community which shares their specific vocation. It is their right to know that the community explicitly sends them and at the same time accompanies both the apostolic discernment and the mission as it unfolds.

⁸⁴ Mt 25: 31-46 마태오 15,31-46

⁸⁵ Constitutions 287 (GP 4 and 8) 예수회헌 287 (정관 4, 8)

공동체로서 CLC는 교회의 사명에 봉사하는 특별한 카리스마(이나시오적인 카리스마)를 받는다. 그것은 사명을 위해 회원들을 파견하는 것, 즉 공동의 사도적 식별 결과로서 특정한 형태의 사도직에 파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나시오의 카리스마를 선택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사도들이기에 특정한 성소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파견을 받는다. 공동체 회원은 공동체가 회원을 명백하게 파견하고 공동체가 전개되는 상황에 따른 사도적 식별과 사명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회원의 권리이다..

3.1. Individual mission 개인적 사명

97. In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attentive to the signs of the times, those who are so disposed are moved to open their hearts to the needs of the men and women of their world. From this contact with reality arise the personal calls that lead to specific ways of following the Lord.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시대의 징표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임에 있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에 함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린다. 현실과의 이러한 접촉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특정한 방식으로 인도하는 개인적 부르심이 발생한다.

98. The invitation to follow Him (vocation) will become concrete in the way we personally respond to these calls. The initial vocation to follow Jesus will unfold in specific activities. But, for these activities to become mission, it is necessary that the community assume the call, help to discern and, finally, send each one on mission.⁸⁶ In this sense perhaps, it would be more correct to speak of *personal involvement in the Church's mission*.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대(성소)는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방식 안에 구체화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기의 성소는 구체적인 활동 안에서 점차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부르심을 인정하고 식별을 돕고, 각 개인을 사명을 위해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사명에 대한 개인의 참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바를 것이다.

99. For each CLC member, the different contexts of their life as laity: family, politics, profession, community, local Church, are the main fields of action.⁸⁷

⁸⁶ All prophetic missions follow this process. First God breaks unexpectedly into the life and heart of the one whom He wants to send to serve His people (vocation). Then, from the commitment of the heart and the needs of the people, the prophet will find his/her *mission*, and carry it out with specific gestures and words.

모든 예언적 사명은 다음 과정을 거친다. 첫째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과 마음 속으로 예고없이 들어오신다(성소). 그 다음, 사람들의 필요와 마음에 대한 투신에서 예언자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구체적 행동과 말로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⁸⁷ Quoting John Paul II in his Apostolic Exhortation *Christifideles Laici* (Dec. 30, 1988) we point out some fields of action:

“An essential service which the Church can do for the whole human family is to rediscover and make others rediscover the inviolable dignity of every human person.... If, indeed, everyone has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acknowledging the personal dignity of every human being and of defending the right to life, some lay people have special responsibility: such as parents, teachers, health-workers and the many who hold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ChL 37 and 3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문헌인 *평신도 그리스도인*(1988년 12월 30일)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활동영역을 제시한다. “모든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존엄성을 재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재발견하게 하는 것은 교회와 그 안에 사는 평신도들이 인류 가족을 섬기도록 부름

받은 봉사의 근본 임무이며... 참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명의 권리를 수호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지만, 평신도들은 부모로서, 교사로서, 보건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한 명목으로 생명권 수호의 소명을 받고 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37, 38)

“The lay faithful's duty to society primarily begins in marriage and in the family. This duty can only be fulfilled adequately if we are convinced of the unique and irreplaceable value that the family has in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Church herself.” (ChL 40)

“혼인과 가정은 사회에 대한 평신도의 의무가 시작되는 최초의 장소이다. 이 의무는 가정이 사회와 교회 자체의 발전에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40)

“A charity that loves and serves the person is never able to be separated from justice. Each in its own way demands the full, effective acknowledgment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to which society is ordered in all its structures and institutions”...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은 결코 정의와 떼어놓을 수 없다. 둘 다 그 나름대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도 그 모든 구조와 제도로써 개인의 권리를 위해 질서 지어져 있다.”...

...“In order to achieve their task directed to the Christian animation of the temporal order, in the sense of serving persons and society, the lay faithful are never to relinquish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that is, in the many different economic, soci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cultural areas, which are intended to promote organically and institutionally the common good... every person has a right and duty to participate in public life, albeit in a diversity and complementarity of forms, levels, tasks and responsibilities. Charges of careerism, idolatry of power, egoism and corruption that are oftentimes directed at persons in government, parliaments, the ruling classes, or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the common opinion that participating in politics is an absolute moral danger, does not in the least justify either scepticism or an absence on the part of Christians in public life”...

... “Furthermore, public life on behalf of the person and society finds its continuous line of action in the defence and the promotion of justice, understood to be a ‘virtue’, an understanding which requires education, as well as a moral ‘force’ that sustains the obligation to foster the rights and duties of each and everyone, based on the personal dignity of each human being.” (ChL 42)

... “인간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질서에 그리스도 정신을 불어넣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평신도들은 ‘정치’ 참여를 결코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곧 경제, 사회, 입법, 행정, 문화 등 수없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동 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참여의 형태, 차원, 임무, 책임의 다양성과 보완성 안에서, 모든 사람은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흔히 정부, 의회, 지배 계층이나 정당의 인사들에게 가해지는 출세 제일주의, 권력에 대한 우상숭배, 이기주의, 부패 등에 관한 비난이 있다고 하여, 그리고 정치 참여는 의심할 여지없이 도덕적으로 위험하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고 하여, 적어도 정치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회의주의나 포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인간과 사회를 위한 정치생활은 정의의 수호와 증진에서 그 부단한 활동 노선을 찾는다. 정의는 ‘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이해는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각개인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촉진시켜야 할 본분임을 떠받쳐 주는 교육은 물론 도덕적 ‘힘’을 요구한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42)

“In the context of the transformations taking place in the world of economy and work which are a cause of concern, the lay faithful have the responsibility of being in the forefront in working out a solution to the very serious problems of growing unemployment; to fight for the most opportune overcoming of numerous injustices that come from organizations of work which lack a proper goal; to make the workplace become a community of persons respected in their uniqueness and in their right to participation; to develop new solidarity among those that participate in a common work; to raise up new forms of entrepreneurship and to look again at systems of commerce, finance and exchange of technology.” (ChL 43)

“경제와 노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려할 만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평신도들은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각 CLC 회원에게 있어서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들이 (가족, 정치, 전문직, 공동체, 지역 교회에서) 자신들의 주된 활동 영역이 된다.⁸⁷

3.2. Group Mission 그룹 사명

100. Action can be not only on a personal level, but also on the group level according to circumstances and in response to the needs perceiv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se apostolic actions are also the expression of the personal vocation each one has received from the Lord. In this case, the community, in one way or another, will tend to translate the action, which it assumes and discerns, into mission. Therefore, we can speak of *group involvement in the mission of the Church*. Working as a team, with the grace of God, will have greater apostolic efficiency.

활동은 공동체 회원들이 인식한 필요에 대한 응답과 상황에 따라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도적 활동들은 각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적 성소에 대한 표현이다. 이 경우에 공동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측하고 식별하는 활동을 사명이 되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명에 대한 집단의 참여*를 언급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한 팀으로서 일하는 것은 더 큰 사도적 효과를 얻을 것이다.

101. As Church institutions become aware of their inadequacy, they will feel the need to collaborate among themselves in the service of Jesus' mission, and to collaborate with other associations of believers or non-believers which have chosen to serve those in need. For Christians, mission in the Church may often mean sharing with believers and non-believers, on a personal or a group level.

교회기관들이 기관의 부적절함을 자각함에 따라, 교회기관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상호협조의 필요를 느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로 한

해결하는 일, 고유의 목적이 결여된 노동조직으로부터 파생되는 무수한 불의를 시의 적절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일, 일터를 인간의 유일성과 참여권이 존중되는 인간 공동체로 만드는 일, 공동노력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대성을 발전시키는 일, 새로운 형태의 기업정신을 창출하고 교역과 금융, 기술교류 체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43)

“Above all, each member of the lay faithful should always be fully aware of being a *member of the Church* yet entrusted with a unique task which cannot be done by another and which is to be fulfilled for the good of all. From this perspective, the Council's insistence on the absolute necessity of an apostolate exercised by the individual takes on its full meaning: The apostolate exercised by the individual - which flows abundantly from a truly Christian life (Jn 4:14) - is the origin and condition of the whole lay apostolate, even in its organized expression, and admits no substitute. Regardless of circumstance, all lay persons (including those who have no opportunity or possibility for collaboration in associations) are called to this type of apostolate and obliged to engage in it. Such an apostolate is useful at all times and places, but in certain circumstances it is the only one available and feasible (Vat II, Decree on the Apostolate of Lay People, Ap .Act. 16).” (ChL 28)

“그 무엇보다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줄 수 없는 고유의 임무를 떠맡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완전한 의식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개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도직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의회가 가르침은 그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도직은 -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샘에서 흘러 나오는 것으로서(요한 4,14) - 단체활동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고 조건이며 그 무엇이든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비록 단체활동에 협력할 기회와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평신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 사도직에 부름 받았으며 이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개인 사도직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익한 것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오로지 개인 사도직만이 적절하고 가능하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8)

다른 신앙단체나 비신앙 단체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사명은 종종 개인적 차원이나 그룹 차원에서 신앙인들과 그리고 비신앙인들과의 나눔을 의미할 수 있다.

3.3. Common mission 공동 사명

102. The common mission of CLC is the mission, which Christ entrusted to CLC as a Church association. This mission is the response, which CLC feels called to give to the great needs and aspirations of today. It is its way of announcing the Good News of God's love in this present historical time. The common mission is made concrete by identifying apostolic priorities and lines of action.

CLC의 공동사명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단체로서 CLC에 맡기신 사명이다. 이 사명은 CLC가 오늘날의 엄청난 필요와 염원에 응답하도록 불림 받았다고 느끼는 응답이다. 그것은 현재라는 이 역사의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알리는 방식이다. 공동사명은 사도적 우선권과 활동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구체화 된다.

103. It does not mean that all CLC members must do the same thing. It is mission that is common: the tasks are different. This is not only because of the origin of mission, but also because of its direction. All of us, each in his/her own way, stand for the same values, follow the same aims and have the same priorities. We can speak of *common involvement in the Church's mission*.

모든 CLC 회원들이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통되는 것은 사명이지만 과업은 다르다. 이것은 사명의 원천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의 방향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방식으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같은 목적을 따르고,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우리는 *교회 사명에 대한 공동 참여*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4. FINDING OUR MISSION IN CLC; CLC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

104. In the Ignatian process of formation, the starting point is the real world. All are invited to be exposed to the pain, the poverty, and the "anguish"⁸⁸ of our world. This is true above all for young people. Ignatius uses a classic term for this type of experience. He speaks of "probations".⁸⁹ These experiences touch those who live through them and allow them to see their world with a new vision. These probations are like "sacraments", which profoundly mark a person. It would be good for CLC to look for realistic ways to experience their world in this way.

⁸⁸ SpEx. 203. 영신수련 203

⁸⁹ To understand the Ignatian process of formation, it is not enough to know the Exercises. Ignatius proposes a series of experiences, and the first among these is the "Spiritual exercises for a month more or less"... the "second, serving in hospitals"... the "third, being a pilgrim for another month without money"... the "fourth, exercising oneself in different low and humble offices" ... the "fifth, giving Christian Doctrine to other uncouth persons" (Const. 65-59). Obviously, this process is not applicable to CLC, but Ignatius' intuition is. Ignatius kept before his eyes Jesus' emptying, as a key to understanding the mission of salvation. (Phil. 2:1ff)

이나시오적 양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신수련을 아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나시오는 일련의 경험들을 제안한다. 그중의 첫 번째는 "한 달가량에 걸쳐 하는 영신수련", 둘째는 "병원에서의 봉사".. 셋째는 "빈털털이로 한 달에 걸친 순례", 넷째는 "낮고 비천한 일을 맡아서 하는 일", 다섯째는 "교육받지 않은 이에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 (예수회헌 65-59)이다. 명백히 이 과정이 CLC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나시오의 직관이다. 이나시오는 구원사명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비우심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필립비 2,1)

이나시오적 양성과정에 있어서 출발점은 현 세상이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고통과 가난과 “고뇌”⁸⁸ 를 경험하도록 초대받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사실이다. 이나시오는 이러한 경험의 형태에 대하여 고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실습”⁸⁹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것을 살아온 사람들을 일깨워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도록 한다. 이러한 실습은 사람을 깊이 특징짓는 “성사”들과 같다. CLC 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105. This "baptism of reality" goes beyond mere social analysis, and through it one can acquire a special sensitivity to the *signs of the times*.

이러한 “현실의 세례”는 단순한 사회분석을 능가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은 그 시대의 징표에 대한 특별한 민감성을 얻을 수 있다.

106.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find our mission in CLC, it is important to be available to serve the local and universal Church. This is how Ignatius and his companions always acted.

다른 한편 CLC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기 위해 지역교회와 보편 교회에 기꺼이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이나시오와 그의 동료들이 항상 행동하던 방식이다.

107. Being attentive always to the *signs of the times* and ready to serve the Church, one is sensitive to specific calls, which through personal and community apostolic discernment are transformed into mission. But, we must not forget that the first step in discernment, in order to be able to choose freely and out of love, is indifference.

시대의 표징에 항상 유의하고 교회에 봉사하도록 준비될 때 사람은 특별한 성소들에 민감해지고, 그 성소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사도적 식별을 통해 사명으로 승화된다. 그러나 자유로움과 사랑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 위하여 식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중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108. The whole process of discernment, by which we "look for" the will of God concerning our mission, requires a careful attention to personal and group rhythms, with the help of both personal and group guides.

우리의 사명에 관한 하느님의 의지를 “찾는” 식별의 전체 과정은 개인적 지도자와 그룹 지도자의 도움과 함께, 개인과 단체의 리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4.1. Apostolic discernment 사도적 식별

109. Apostolic discernment means the intelligent and contemplative attention given to the Spirit by the mature Christian in all commitments: family, work, the different ways in which God can make His will manifest profession, social and Church. The purpose is to seek and to find God's will for our mission. In order to seek the divine will one's heart must burn with the same fire as burns within the Heart of Christ.⁹⁰ One must also be familiar with. In short, one must be ready to opt for the greater glory of God and for the universal good.

사도적 식별은 가족, 일, 하느님께서 직업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과 같은 것에 하는 모든 투신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지성적이고 관상적인 태도로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식별의 목적은 우리의

⁹⁰ Lk 12:49; Phil 2:5 루가 12,49; 필립비 2,5

사명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타오르는 것과 같은 불로 타올라야 한다⁹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숙해져야 한다. 짧게 말하면,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보편선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When this discernment process is done in community - something very characteristic of CLC - the following elements should be present:

이 식별과정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 이것이 CLC의 독특성이다 - 다음의 요소들이 요구된다.

4.1.1 Personal and communal prayer 개인 및 공동 기도

110. From beginning to end, discernment is a journey of prayer. Remembering that we have been created to "praise, reverence and serve God our Lord"⁹¹, "we need prayer and discernment, personal and communal...in order to seek and find God in all things".⁹² With "great courage and generosity"⁹³ we want to ask our Lord for the gifts of availability and of knowing His will in this world in which we live. We make this petition as an important part of our daily personal prayer and we also repeat it in our community encounters throughout the whole discernment process.

식별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여정이다. 우리는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 분께 봉사하도록"⁹¹ 창조되어 왔음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개인과 공동의 기도와 식별을 필요로 한다."⁹² "엄청난 용기와 관대함을 지니고"⁹³ 우리는 우리 주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청원을 우리의 일상적 개인 기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식별의 전체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공동체 만남에서도 그 청원을 반복한다.

4.1.2 Looking at this world in which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봄

111. We recognize that the whole world is our meeting place with God. For this reason, we make contact with all that surrounds us in order to discover there the Lord's call. Since the field of our possible mission knows no limits⁹⁴, we cannot narrow down this look at our world when we seek to know our mission. The Lord speaks to us in our community, through its present and past history, in the Church and in our country.⁹⁵ This is how we can see Him acting through us in our

⁹¹ SpEx 23 영신수련 23

⁹² GP 5. 정관 5

⁹³ SpEx 5. 영신수련 5

⁹⁴ GP 8. 정관 8

⁹⁵ See what was said about the "probations" proposed by St. Ignatius. 이냐시오 성인이 제시한 "실습"들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라.

personal apostolates⁹⁶ and in the corporate or group apostolates.⁹⁷ The needs we see today in the Church and in the world are also calls from the Lord. We want to respond better, knowing that *"love ought to manifest itself more in deeds than in words"*.⁹⁸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주위의 모든 것과 접촉한다. 우리에게 가능한 사명의 영역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⁹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고자 할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할 수 없다. 주님께서서는 현재와 과거의 역사를 지닌 우리 공동체, 교회, 국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⁹⁵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 사도직과⁹⁶ 공동 사도직 안에서⁹⁷ 우리를 통해 활동하시는 주님을 보는 방식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세상 안에서 보게 되는 필요들은 또한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다. 우리는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다 더 잘 응답하기를 원한다.⁹⁸

4.1.3. Our Ignatian charism 우리의 이나시오적 카리스마

112. As a community we are well aware that our common vocation, our charism and style of discernment have their origin in the Spiritual Exercises and are expressed in the CLC General Principles. Our life makes no sense if it is not living and seeking *"in all and through all the greater praise and glory of God our Lord"* (SpEx 189). Let us remember that *"our life is essentially apostolic"* and that *"the field of CLC mission knows no limits"*. *"As members of the pilgrim People of God, we have been sent by Christ to be His witnesses to all people by our attitudes, words and actions"*.⁹⁹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된 성소, 카리스마, 식별양식이 영신수련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CLC 정관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찬미를 드림"*(영신수련 189) 을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사도적이고 CLC 사명의 영역은 무한하며,"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일원인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태도, 말과 행위로 당신의 증거자가 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과견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자.⁹⁹

4.1.4. Spiritual movements 영적 움직임

113. St. Ignatius learned to recognize interior and spiritual movements. In his autobiography he says that while still in the house of Loyola, *"his eyes were opened a little, and he began to marvel at the difference and to reflect upon it, realizing from experience that some thoughts left him sad and others joyful. Little by little he came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irits that were stirring, one from the devil, the other from God"*.¹⁰⁰

⁹⁶ GP 8a. 정관 8a

⁹⁷ GP 8b. 정관 8b

⁹⁸ SpEx 230. 영신수련 230

⁹⁹ GP 8. 정관 8

¹⁰⁰ Autobiography 8. 자서전 8

이나시오 성인은 내적 움직임과 영적인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을 배웠다. 자서전에서 이나시오 성인은 로올라 집에 머무는 동안 “차츰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그 차이점에 놀랐고 꼼꼼이 따져보기 시작했으며 드디어는 어떤 공상은 쓸쓸한 기분을 남겼고 어떤 것은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 갔다. 그는 서서히 자기를 동요시키고 있는 영들의 차이를 깨닫기에 이르렀으니, 하나는 악신에게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었다.” 고 기술한다.¹⁰⁰

114. Then in Manresa, during the original experience of the Spiritual Exercises, he deepened his awareness of this difference of spiritual movements and how to interpret them in order to know the will of the Lord. Formed in the school of the Exercises, we can deepen daily our understanding of and learn to become more aware of, and to interpret more surely these interior movements, which are raised up by our looking around us. This enables us to know what the Lord desires of us, both as individuals and as community.

그 다음 만레사에서 영신수련의 기원이 되는 경험 중에 이나시오는 그의 영의 움직임에 대한 차이점과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깊게 깨달았다. 영신수련의 학교에서 훈련된 우리는 매일 우리 주위의 것을 바라봄으로써 일어나는 내적 움직임들에 대한 이해를 날마다 깊게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좀더 깊게 의식하고 좀더 확실히 해석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

4.1.5. Group process 그룹 과정

115. These, interior movements, will be experienced in prayer and in daily life by each member of the community. They will also be a part of the experience, which we share openly. To become aware of them and to interpret them spiritually will enable us to know if our reactions, to the world we see around us, lead us to the *greater service and praise of God*.

이러한 내적 움직임들은 공동체의 각 회원에 의해 기도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누는 경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내적 움직임들을 인식하여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느님께 더 큰 찬미와 봉사로” 이끄는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116. This presupposes that the group is deeply rooted in mutual trust and that, with the help of the guide, it can be sensitive to the dynamic process of the group itself. A constant openness to others, through listening, will be important, avoiding any discussion unless the process of discernment itself explicitly calls for it.

이것은 그룹이 상호 신뢰 속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고, 가이드의 도움으로 그룹 자체의 역동적 과정에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식별의 과정에 토론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 어떠한 토론도 피하고 듣기를 통해 타인에게 항상 개방되어져 있는 것은 중요하다.

117. These elements are essential for an apostolic discernment and it is fitting that they be present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As we said, the constant support of a good community guide is necessary. In a similar way for individual apostolic discernment, it is recommended that we have the support of an experienced spiritual guide.

이러한 요소들은 사도적 식별을 위해 필수적이고, 그 모든 과정 안에 존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말하였던 대로, 좋은 공동체 가이드의 부단없는 후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각 개인의 사도적 식별을 위해서도 우리는 경험이 많은 영적 지도자를 가지도록 권고받는다.

4.2. Apostolic discernment as a permanent attitude **항구적 태도로서의 사도적 식별**

118. In one way or another these elements are always present in the CLC member who desires to live apostolic discernment as a habitual attitude. It is the fruit of the "Contemplation to attain love" at the end of the Exercises¹⁰¹: "an interior knowledge of all the great good I have received, in order that, stirred to profound gratitude, I may become able to love and serve His Divine Majesty in all things". Moved by this grateful love, St. Ignatius invites us to seek always a greater awareness of God's presence and action in our lives.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러한 원리들은 사도적 식별을 습관적 태도로 살고자 하는 CLC 회원에게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영신수련 마무리 부분에 있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의 열매이다.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¹⁰¹: “하느님께 받은 무수한 은혜를 진심으로 깊이 알기를 구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은혜를 완전히 알아서 만사에서 지존하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분께 봉사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함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이러한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의 더 잘 알아 차리도록 초대한다.

119. For this reason the *examen* is one of the more significant activities by which apostolic discernment becomes part of us.¹⁰² In the Exercises, various types of *examen* are proposed. Among these is the *General Examen* (or review of the day), which helps us "to love and serve in everything" remembering that, "love ought to manifest itself more in deeds than in words". For

¹⁰¹ SpEx 230-237. 영신수련 230-237

¹⁰² A fundamental dynamic of the Spiritual Exercises is the continuous call to reflect in prayer about the whole personal experience, in order to be able to discern where the Spirit of God is leading us. Ignatius requires reflection on the human experience as an indispensable means of discerning its validity because without a prudent reflection it is possible to have a merely deceptive illusion, and without attentive consider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individual experience could be diminished or minimized. Only after an adequate reflection on the experience and an interiorization of its significance and the implications of what we are living, can we proceed freely and confidently to a correct decision on the way to proceed. This will favour the full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the person who seeks to accomplish the mission he or she received from God with greater fidelity. For St. Ignatius, reflection is the central point in passing from experience to action. This continuous interrelationship of experience, reflection and action is the key to the Ignatian process of formation.

영신수련의 근본적인 역동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식별할 수 있기 위해 기도 안에서 개인의 경험 전체를 숙고해 보도록 하는 지속적인 부르심이다. 이나시오는 인간 경험의 타당성을 식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인간경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신중한 성찰이 없다면 인간 경험은 단지 현혹시키는 환상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주의깊은 고찰 없이는 개인적 경험의 의미가 감소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험에 대한 적절한 성찰과, 경험의 의미에 대한 내화(內化)와 삶에의 적용이 있는 이후에만 우리는 올바른 결정에 이르는 길로 자유롭고 안정되게 전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더 성실하게 완성하려는 사람에게 완전하고 통합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 성찰은 경험에서 활동으로 넘어가는 중심점이 된다. 경험과 성찰과 활동의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 관계성은 이나시오 양성과정의 중심이 된다.

Ignatius, the daily review is truly a colloquy overflowing with humble gratitude and filled with faith, trust and love.¹⁰³

이러한 이유로 사도적 식별이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하는 성찰은 아주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¹⁰² 영신수련에서 다양한 방법의 성찰이 제시된다. 이중에 일반성찰(그 날에 대한 반성)이 있다. 그것은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모든 것에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 매일의 반성은 겸손된 감사에서 흘러나오고,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찬 진정한 담화이다.¹⁰³

120. It is understood that the one who practices this "spiritual exercise" is an apostle, who has been working with Jesus Himself throughout the day, in accordance with the meditation of the Kingdom: "whoever wishes to come with Me..."¹⁰⁴, and who at the close of the day wants to talk over what the Lord has done during all this time "as one who speaks with his friend".¹⁰⁵ For the day, which is about to begin, there is prayer for the grace to live each moment sharing the mission of Jesus.

이러한 “영신수련”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묵상을 따라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 즉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며,¹⁰⁴ 하루를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루 내내 해 오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사도, 즉 “친구와 이야기 하는 사람”¹⁰⁵ 으로 이해된다. 하루의 시작부터 그날 하루 매 순간에 예수님의 사명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121. Thus, for those who walk in the footsteps of the apostle seeking to continue alongside the Lord, the examen is an absolutely indispensable pause, which permits them to see their journey in perspective and to gather their strength to tackle the next stage with renewed vigour and clarity. Above all, the faithful practice of the examen is essential to the formation of the "contemplative in action" who seeks and finds God in all things.

그러므로 예수님 옆에 있기를 계속 추구하며,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 성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단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여정을 균형이 잡힌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 새로운 활력과 명료함으로 다음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힘을 모으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성찰하는 것은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는 “활동 속의 관상가”를 만드는 양성에 필수적이다.

4.3. Criteria for apostolic discernment 사도적 식별의 기준

¹⁰³ Some types of examen proposed in the book of the Exercises are: the “Fifth Addition of Prayer” (SpEx 77); the “First Method of Prayer”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prayer of examen (SpEx 241); the “Particular Examen” (SpEx 24-31); and the Examen on the Exercises and Additions (SpEx 90, 160, 207); the General Examen (SpEx 32-43). See in the support material “Review of the Day”.

영신수련 책에 제시된 여러가지 형태의 성찰은 다음과 같다. “기도의 다섯째 부칙” (영신수련 77); 성찰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첫째 기도 방식 (#241)”; “특별 성찰 (#24-31)”, 묵상과 부칙에 대한 특별성찰 (#90, 160, 207), 일반성찰(#32-43)등이다. 보충 자료인 “일일반성”(Review of the Day)을 참고할 것.

¹⁰⁴ SpEx 95. 영신수련 95

¹⁰⁵ SpEx 54. 영신수련 54

122. The CLC General Principles underline the need for apostolic discernment.¹⁰⁶ They also propose a number of criteria, inspired by those drawn up by St Ignatius, for choosing our ministries and specific missions. Everything, which comes to us from Ignatius, in this case apostolic discernment, is marked by the "*magis*" (*the more effective*). His zeal for the greater glory of God enabled him to seek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helping others.

CLC 정관은 사도적 식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정관은 우리의 사목 직무와 특정한 사명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그 기준은 이냐시오 성인에 이끌린 사람들에게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냐시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것, 특히 사도적 식별의 경우에 있어서 "*magis*"(**더 효과적인 쪽**)로 드러난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이냐시오의 열정은 그로 하여금 남을 돕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을 찾을 수 있게 했다.

123. This discernment of the more appropriate means is made in the Spirit of Christ, by means of the rules for discerning which interior movements arise from the same Spirit, through our contemplation of the life of Jesus. These rules have already been mentioned in the paragraph concerning the choice of our personal vocation. It is a process, which involves the heart no less than the head. Ignatius proposes, however, certain rational criteria (cf. *Three times suitable for making an election* SpEx 175) with a view to discovering the greatest service, which can be rendered to our neighbour in particular circumstances.

좀 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이 식별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어떤 내적 움직임들이 같은 영에서 일어나는가를 식별하는 규범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관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범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소 선택에 관한 문항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이 과정은 머리보다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냐시오는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를 할 목적으로 확실하고 합리적인 기준을(cf. *선택의 3 가지 시기* 영신수련 175) 제안한다.

124. The Ignatian criteria for apostolic discernment are found not only in the *Spiritual Exercises* but above all in the *Autobiography*, where personal progress and processes are illustrated and in his *Letters*, where Ignatius suggests strategies for definitive objectives and proposes means for attaining them. In the *Constitutions of the Society*¹⁰⁷, Ignatius makes a systematic presentation of

¹⁰⁶ "The community helps us to live the different dimensions of this apostolic commitment, and to be always open to what is more urgent and universal, particularly through the *Review of Life* and through personal and communal discernment. We try to give an apostolic sense even to the most ordinary parts of our daily life" (GP 8). "Since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aims to work with Christ for the coming of the Kingdom, each individual members is called to be active in the vast field of apostolic service. Apostolic discernment, both individual and communal, is the ordinary way of discovering how best to bring Christ presence, concretely into our world." (GP 12b)

"공동체는 우리가 이러한 사도적 투신의 서로 다른 차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특히 삶에 대한 반성과 개인이나 공동체의 식별을 통해서 더 시급하고 보편적인 것들에 항상 개방되어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평범한 부분들에도 사도적 감각을 발휘하고자 한다." (정관 8).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다가오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모든 회원들은 광범위한 사도적 봉사의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불림을 받고 있다.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는 사도적 식별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정관 12)

¹⁰⁷ Constitutions 618, 622... 예수회헌 618, 622

the criteria for choosing ministries.¹⁰⁸ These criteria can help us in CLC to define our own apostolic mission¹⁰⁹; for example, that CLC members should be open to what is more *urgent and more universal*.

사도적 식별을 위한 이냐시오의 기준은 영신수련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진보와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자서전*과 그의 *편지*에서 발견된다. 편지에서 이냐시오는 구체적 목적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안한다. *예수회헌*에서¹⁰⁷ 이냐시오는 사도직 선정을 위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⁰⁸ 이 기준들은 CLC 안에서 우리가 우리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정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¹⁰⁹ 예를 들면 CLC 회원은 *더 시급하고 더 보편적인 것*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¹⁰⁸ *The universal and most enduring good*: “to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in other words “to set up structures rather than one-time events”, to develop actions and services which can be replicated or repeated by the participants.

The greatest need and urgency: to go where there is no one else, where those who should be there, care little or nothing about their obligations.

The greatest good: the formation of “multipliers”; the creation of networks of communication conscience that we are one global family.

보편적이고 가장 영구적인 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기”, 다른 말로는 “일시적 행사보다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

가장 큰 필요와 시급함: 자신들의 의미에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 있어야 하는 곳에 감

가장 큰 선(善): “증식자들”의 양성; 우리가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는 의식의 통신망을 구축

¹⁰⁹ GP 8c. 정관 8c

II.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CLC)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125. CLC is called to be first and foremost a Christian community with a certain number of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its own. In order that we may understand better the distinctive features of CLC as a community, we will first briefly examine the specific process by which the community grows and matures and then, in more detail, the role it plays in the growth and maturation of its members.

CLC 는 무엇보다도 먼저 몇가지 고유한 특성과 특징을 지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 공동체로서 CLC 의 독특한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특별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서 좀더 세부적으로 회원들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공동체가 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A. THE CLC PROCESS AS A COMMUNITY CLC 가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과정

126. Our biblical faith shows, that God calls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sends communities on their journey as either religious or lay, like CLC.

성서적인 신앙의 맥락에서 보면 하느님은 개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수도자나 CLC 와 같은 평신도로서 여정을 걸어가도록 공동체로 파견하신다.

127. Therefore, taking the Spiritual Exercises as the "specific source" of our spirituality, CLC as a group lives a history of grace similar to the journey lived by an individual. The community goes through moments of promise, of call and of moving forward with confidence and hope. It goes through periods of crisis: moments when it feels far away from God, but turns back to Him and feels welcomed. It goes through experiences of regenerating the love of God, in reconciliation and mutual acceptance, and through periods of discerning the calls of God in order to grow in becoming discerning apostolic communities.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에 특별한 원천이 되는 영신수련을 가지고 집단으로서 CLC 는 개인이 거처온 여정과 비슷한 은총의 역사를 살아간다. 공동체는 약속의 순간과 부르심의 순간 그리고 신뢰와 희망으로 전진하는 순간을 거쳐 나간다. 공동체는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끼는 순간과 하느님께 되돌아 가서 받아들여짐을 느끼는 순간과 같은 위기의 시기를 거친다. 식별하는 사도적 공동체로 성숙하기 위해 화해와 상호수용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과 하느님의 부르심을 식별하는 시기를 거친다

128. It usually begins by becoming a *community of friends in the Lord*. This first goal gives direction to the group and offers the necessary basis for the community's development. So that the community may have the richness of "friends in the Lord" right from the beginning, it is important that a true experience of God is lived within it.¹¹⁰

¹¹⁰ "In practice this involves participation in the Eucharist whenever possible; an active sacramental life; daily practice of personal prayer, especially that based on Sacred Scripture; discernment by means of a daily review of one's life and, if possible, regular spiritual direction; an annual interior renewal in accordance with the sources of our spirituality; and a love for the Mother of God." (GP 12a)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님 안에서 벗들의 공동체”가 될 때 시작된다. 이러한 첫 번째 목적은 집단에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공동체는 바로 시작에서부터 “주님 안에서의 벗들”이라는 풍요로움을 가진다. 하느님에 대한 진실된 경험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¹¹⁰

129. After an initial stage when the community is full of hope, there may be moments of crises and tension, and even of collective sin. At such times, it is important that the guide help them to see and live these moments as times of growth, purification and reconciliation in and with Christ (First week of the Exercises).

공동체가 희망으로 가득 찬 초기단계를 거친 후에 위기와 긴장의 순간이 있게 되고, 심지어는 공동의 죄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시기에 가이드가 회원들로 하여금 이 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정화하며 화해하는 시기로 보고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신수련 첫째주간).

130. Thanks to this experience a new desire begins to unfold in the community: to be united to Christ in his mission to the world and to direct one's life more and more in the light of Christ's choices (Second week of the Exercises). Contact with poverty, marginalization, and other painful situations in our world and the frequent practice of the Spiritual Exercises, personalized and complete, if possible, will be necessary. This will be the moment for *vocational discernment* (for young people the election to a state of life, of profession etc...for adults a reform of life) and later on of opening oneself as a person and as a community to an ongoing permanent apostolic discernment in the following of Christ.

이러한 경험 덕분에 새로운 열망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열망은 세상 안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것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둘째주간) 우리의 세상 안에 있는 가난, 소외, 고통스러운 상황과 접촉하고, 자신의 것이 된 영신수련 전체를 가능하다면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젊은이에게는 인생과 직업의 선택 등, 성인들에게는 삶의 개선이라는 성소식별을 위한 순간이 될 것이고, 그 후로도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지속되는 영구한 사도적 식별에 개방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131. Thus the community becomes an *apostolic community*, made up of adults "who want to follow Jesus Christ more closely and work with Him for the building of His Reign, and who have recognised Christian Life Community as their particular vocation within the Church"¹¹¹; consequently, they make a Permanent Commitment to it. The members of a group will help each other to keep alive their apostolic zeal and to render the quality of service that the Church expects of them.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실천 방법에 있어서, 가능할 때면 언제나 참여하는 성찬예절, 능동적인 성사생활, 특히 성서에 기반을 둔 매일의 개인기도, 자신의 매일 삶을 반성하는 성찰,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영적 지도, 우리 영성의 원천을 따라 하는 연피정,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연관된다.” (정관 12)

¹¹¹ GP 4. 정관 4

특정한 성소로 인식하는 성인”으로 구성된 사도적 공동체가 된다.¹¹¹ 결과적으로, 그들은 공동체에 중신서약을 하고 공동체 회원들은 서로 사도적 열의를 보존하도록 서로 돕고 교회가 회원들에게 기대하는 양질의 봉사를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133. It sees itself not only as a community of apostles, that is of persons more or less committed to their own individual missions, but rather, it is an apostolic community in which the members, although dedicated to their own different tasks, share together their lives and the way they each carry out their mission. They also discern together the object and content of each other's mission. They are sent by the community and, with its help, evaluate how they are following Christ who was sent by the Father.

공동체는 자체를 각자 개인의 사명에 투신한 사람들인 사도들의 공동체로 볼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상이한 자신의 과업에 헌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적 공동체로 인식한다. 회원들은 또한 각자의 사명의 대상과 내용을 함께 식별한다. 회원들은 공동체에 의해 파견되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아버지로부터 파견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평가한다.

133. In the adult stage, the most important mission is normally the "family". The time dedicated to the community will be rigorously conducted. Its meetings and events are programmed to having "mission" as their purpose. The community rhythm cannot be the same as in the earlier stages, when its members were in formation (from the human, professional and Christian point of view). At this stage, imagination and flexibility are needed.

성인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보통 “가족”이다.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간이 어렵게 이루어질 것이다. 공동체 모임과 행사는 목적으로서 “사명”을 가지는 것에 맞추어진다. 공동체의 리듬은 이전의 단계들, 즉 회원들이 인간적 관점, 전문적 관점, 그리스도인적 관점에서 벌어지는 양성의 과정에 있었을 때와 같을 수 없다. 이 단계에서는 상상력과 유연성이 요구된다.

B. CHARACTERISTICS OF THE CLC COMMUNITY CLC 공동체의 특성

1. A "lived" community 생활 공동체

134. *"To prepare our members more effectively for apostolic witness and service, especially in our daily environment, we form communities of those who strongly desire to unite their lives completely with their Christian faith according to our charism."*¹¹²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회원들이 사도적 증거와 헌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의 카리스마에 따라 원숙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불러모은다.”¹¹²

135. *Vocation in CLC is communal.* It is lived out with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The commitment of the individual to the World Community is expressed through a *particular community*, freely chosen¹¹³, made up of a maximum of twelve people, generally from a similar

¹¹² GP 4. 정관 4

¹¹³ GP 7. 정관 7

background.¹¹⁴ Each member of this community of friends in the Lord is called to accompany its members in discerning their personal vocations and lives as collaborators in the mission of Christ¹¹⁵. It can be said that community is a privileged way in which CLC implements Ignatian Spirituality and apostolic service in its members' lives.¹¹⁶

CLC의 성소는 공동체적이다. CLC는 공동체의 도움으로 이 성소를 살아 나간다. 세계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인 투신은 자유롭게 선택하고¹¹³ 최대 12명을 넘지 않으며, 비슷한 배경을 가진 특정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표현된다.¹¹⁴ 주님 안의 벗들로 이루어진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성소를 식별하는 회원과 함께 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협력자로서 살도록 불림을 받고 있다.¹¹⁵ 공동체는 CLC가 회원들의 삶 속에서 이나시오 영성과 사도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특권적인 방법이다.¹¹⁶

136. The CLC is a "*gathering together in Christ, a cell of His mystical Body*", which is based on faith and a common vocation, rather than on natural affinities. "*We are bound together by our common commitment, our common way of life, and our recognition and love of Mary, as our mother.*"¹¹⁷

CLC는 자연적인 친화성이 아니라 신앙과 공통의 성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한 세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모임"이다. "우리는 같은 투신, 같은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결속되어진다."¹¹⁷

137. The community itself, in so far as the group expresses unity among its members and with others, bears witness to the Good News of Christ before the world.

한 그룹이 회원들 간의 일치와 다른 그룹과의 일치를 표현하는 한에 있어서 공동체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138. With some exceptions, the members of a group do not normally share goods in common and live under one roof. Nevertheless, CLC is a *community of life*, and as such is "*a unity expressed in love and action*"¹¹⁸, because its members are engaged in

일부의 예외는 있지만 한 그룹의 회원들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물질을 공동으로 나누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LC는 생활공동체이며 "사랑과 활동을 통해 일치를 표현한다."¹¹⁸ 왜냐하면 CLC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투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following the same particular vocation in the Church and adopting a way of life consequent on that,¹¹⁹

교회 안에서 동일한 특정한 성소를 따르고 이를 삶의 방식에 적용하기 때문이다;¹¹⁹

¹¹⁴ GN 39b. 통칙 39b

¹¹⁵ GP 12c. 정관 12c

¹¹⁶ GP 11. 정관 11

¹¹⁷ GP 7. 정관 7

¹¹⁸ GP 7. 정관 7

¹¹⁹ GP 4 and 7. 정관 4, 7

- ♦ sharing their problems, their aspirations, their plans and various aspects of their lives, and helping each other in this way to live their Christian faith fully,¹²⁰
자신의 문제, 영감, 계획과 삶의 여러 국면을 함께 나누고, 자신들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돕기 때문이다¹²⁰
- ♦ helping each other in their spiritual and material needs with a spirit of solidarity,
연대의 정신으로 영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에 있어서 서로 돕기 때문이다
- ♦ undertaking a common mission, despite different social backgrounds, ages, characters or tasks.¹²¹
서로 다른 사회적인 배경, 나이, 성격이나 과업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¹²¹

139. The CLC process of formation entails the mutual assistance of its members towards apostolic and spiritual growth, by trying to integrate their faith with their lives. The community is able to continue the dynamics generated by the Spiritual Exercises¹²² so that members are better prepared for apostolic witness and service.¹²³
CLC의 양성과정은 신앙과 삶을 통합함으로써 사도적,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회원들간의 상호협력을 필요로한다. 영신수련이 불어 넣어주는 역동성을 지속해 갈 수 있으며,¹²² 그리하여 회원들이 사도적인 증거와 봉사를 더 잘 준비하게 된다.¹²³

140. The CLC community supports the human, spiritual and apostolic development of each of its members, especially through
CLC 공동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하여 각 회원들의 인간적, 영적, 사도적 성장을 지원한다.

- the apostolic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community and its commitment to a common mission
공동체가 수행하는 사도적 활동과 공동의 사명에 대한 공동체의 투신
- the witness of the lives of the members, particularly of the adult ones
각 회원들 특히 성인 회원들의 삶의 증거
- formation activities such as shared prayer, the general examen, communal discernment and study groups
나눔 기도, 일반성찰, 공동식별, 연구 모임과 같은 양성활동
- the group life and teamwork help to sustain attitudes of interior freedom and openness to others, the capacity to understand and to forgive, the ability to renounce one's own desires, and a sensitivity to the needs of others and a readiness to respond.

¹²⁰ GP 12c. 정관 12c

¹²¹ GP 8. 정관 8

¹²² GN 39a. 통칙 39b

¹²³ GP 4. 정관 4

내적인 자유와 타인에 개방되는 태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집단생활과 공동작업,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 자기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능력, 타인의 필요에 대한 예민성과 그에 대한 기꺼운 응답 자세

- service to the local, regional, national and world communities.
단위,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에 봉사

141. The most concrete expression of this community life is its *meeting* which should be held each week or fortnight. Regularity is necessary for real growth in the group.¹²⁴ At these meetings, important elements of CLC formation and activities take place, appropriate for a community that lives on mission and which is engaged in apostolic service. Group bonds are reinforced by a better knowledge of each other and by reciprocal gestures of love and service.

이런 공동체 생활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임이다.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CLC 양성의 중요한 요소와 활동이 벌어지며, 그것은 사명을 살아가며 사도적 봉사를 하는 공동체에 적절한 것이다.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서, 상호간의 사랑과 봉사의 몸짓을 통해서 결속력이 강화된다.

142. The life of the CLC is centred on the *Eucharist*. This is why all its members participate periodically in the celebration of Eucharist together¹²⁵, expressing sacramentally that intimate communion, which is based on Christ and on the Church.

CLC의 생활은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기반을 둔 친밀한 일치를 성사적으로 표현하며 주기적으로 미사성체에 함께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A community on mission 사명의 공동체

143. To live on mission is the specific way of being for CLC. All that the community is and does receives its sense from the mission of the Church itself.¹²⁶ CLC is a community on mission or an *apostolic community*.

사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CLC의 특별한 존재 양식이다. 공동체가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교회 자체의 사명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¹²⁶ CLC는 사명의 공동체이거나 사도적인 공동체이다.

2.1. MISSION ALWAYS COMMUNAL 항상 공동체적인 사명

144. Even when apostolic service is offered on an individual basis, the service is always part of the mission received in CLC. Mission is always communal.

비록 사도적인 봉사가 개별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때에도 그 봉사는 CLC 안에서 받은 사명의 부분이다. 사명은 항상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¹²⁴ GN 39b. 통칙 39 b

¹²⁵ GN 40. 통칙 40

¹²⁶ GP 4 and 8 정관 4, 8

145. It is the *being sent by the Church* that gives a sense of mission to the apostolic tasks and humanitarian services of the members of CLC. The world community, integrated in the life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he fundamental mediator of our mission. We receive this mission in our local and national community.

CLC 회원들의 사도적 과업과 인간적인 봉사에 사명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파견받았다는 데 있다.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 통합되는 세계 공동체는, 우리 사명의 근본적인 매개체다. 우리는 이 사명을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다.

146. Moreover, mission is a common mission because it is the *fruit of communal discernment* at the local, national or world level. Thanks to the community, a personal discernment is completed by a communal discernment.

더 나아가 사명은 지역이나 국가나 세계 차원에서 하는 공동식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동의 사명이다. 공동체 덕분에, 개인식별은 공동식별에 의해 완성된다.

147. The small group or local community is indispensable to our discernment of mission. This group is not always the place where all initiatives are taken and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he means to sustain some apostolic activities. Other structures, such as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Councils, are needed at the World or National Community levels when more universal apostolic priorities and concrete plans for action and collaboration by CLC are undertaken.

작은 그룹이나 지역 공동체는 사명을 식별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이 그룹이 항상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반드시 특정 사도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보편적인 사도적 우선 순위와 CLC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때 총회와 상임위원회와 같은 다른 구조가 세계나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필요하다

2.2. APOSTOLIC COMMUNAL DISCERNMENT 사도적 공동식별

148. Apostolic communal discernment is a way of implementing what Vatican II called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and involves the following stages

사도적 공동식별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기*라고 부른 것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 the community is *attentive to and capable of opening* itself to others, to hearing their deepest desires and recognising their most pressing needs in order to discover the most urgent and universal tasks which should be undertaken, and to offer more efficient, radical and global solutions to these problems.

공동체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개방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는 착수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보편적 과업들을 찾고, 이 문제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극단적이며 지구촌 전체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타인의 가장 깊은 염원을 듣고 그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인식한다.

- ▶ the community *prays for the grace of availability*. In this prayer, we receive the fruit of a community, which desires to be attentive and open to that Spirit, who calls us to service and sends us on mission. This personal prayer is shared with the group.

공동체는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있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우리를 파견하시는 성령께 주의를 기울이고 개방하기를 염원하는 공동체의 열매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는 공동체를 통해 나누어진다.

- ▶ the community that *deliberates, sends and confirms our mission* is able to make decisions, to make choices and assume apostolic tasks in which, one way or another, all the group members are engaged.

우리의 사명을 식별하고 파견하며 확증하는 공동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회원 모두가 관여하게 되는 사도적 과업을 맡을 수 있다.

3. A WORLD COMMUNITY 세계 공동체

3.1. THE UNIVERSALITY OF CLC CLC의 보편성

149. The communal nature of CLC reflects the tension that is to be found between what is individual and what is universal,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world community. CLC is basically a sharing of life at the local level, but it also has a universal dimension.

CLC의 공동체적 성격은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지역 공동체와 세계 공동체 사이에서 발견되는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CLC는 기본적으로 단위 공동체 차원에서 생활을 나누는 것이지만 또한 보편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150. Following a communal discernment, which began at the Rome Assembly in '79 and ended at Providence in '82, the World Federation decided to become *one world community* governed by a General Assembly, whose meetings are privileged moments when the community discerns CLC's mission.

'79년 로마 총회에서 시작되어 '82년 프로비던스 총회에서 끝난 공동식별을 따라서 세계연맹은 총회에 의해 통치되는 *단일한 세계 공동체*가 되자는 결정을 했다. 총회의 모임은 공동체가 CLC의 사명을 식별하는 특권적인 순간이다.

151. At the beginning a group, united with Fr. Jean Leunis SJ, founded the Marian Congregation. As the number of groups grew, they were attached to a main community in Rome (1574) called the "*Prima Primaria*". In 1953, the Marian Congregations were united in a World Federation.

초기에 Jean Leunis 예수회 신부와 결합한 그룹이 성모회(Marian Congregation)를 설립하였다. 그룹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각 그룹은 로마에 있던 "*Prima Primaria*"라고 불리는 대표 공동체와 연대하였다(1574년). 1953년에 성모회는 세계연맹과 결합하게 되었다.

152. In 1967, the General Principles were approved and the renewal of the spirit was expressed by changing the name to World Federation of Christian Life Communities. In 1982, the World

Assembly at Providence approved being *one unique World Community*, living in local communities. Each member of CLC belongs, first of all, to the World Community through his or her specific community. "*We each commit ourselves to the World Community through a freely chosen local community*".

1967년에 정관이 인준되고, 정신의 쇄신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세계연맹이란 이름으로 바뀜으로써 표현되었다. 1982년 프로비던스에서 열린 총회는 단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단일한 세계 공동체*임을 인정하였다. CLC의 각 회원은 자신의 특정한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먼저 세계 공동체에 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 단위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공동체에 투신한다.*"¹²⁷

153. Thus the universality of CLC is visible in our *one* world community. This universal dimension ought to be present in every member and in each local community because it is rooted in our theology and is an essential element of our Ignatian Spirituality.

따라서 CLC의 보편성은 *단일한 세계 공동체*를 통해서 눈에 드러난다. 이런 보편적인 차원은 모든 회원들과 모든 단위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차원이 우리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냐시오 영성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3.2. THE THEOLOGICAL ROOTS OF THE UNIVERSALITY OF CLC: THE TRINITY, JESUS AND THE WORLD CLC 보편성의 신학적 뿌리 : 삼위일체, 예수님 그리고 세상

154. The General Principles speak to us of the three Divine Persons who, contemplating divided humanity, decide to give themselves completely to all men and women to make them free from all that drive them.¹²⁸ This redeeming initiative was expressed in the Incarnation of the Son and awakens - as a grace - in the members of CLC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of Jesus Christ.

정관은 성삼위께서 분열된 인간세상을 관상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자 당신을 완전히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¹²⁸ 이러한 구원적인 주도가 아드님의 육화로 표현되었으며 - 은총으로 - CLC 회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 일으킨다.

155. The more deeply we live our faith in Jesus, the deeper will be our desire for communion with all men and women going beyond the small community in order to reach "*all persons of good will*"¹²⁹ as the Trinity did in Christ. At the World Assembly in Rome 1979, it was said: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살아가면 갈수록, 성삼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선의의 사람들*"¹²⁹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작은 공동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과 일치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더 깊어질 것이다. 1979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총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We are called to the deepest meaning of community. Our community is called to reflect God's family. God is community.*

¹²⁷ GP 7. 정관 7

¹²⁸ GP 1. 정관 1

¹²⁹ GP 7. 정관 7

우리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공동체로 불림을 받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의 가족을 반영하도록 불림을 받고 있다. 하느님은 공동체이시다.

- ▶ *CLC members are to contemplate the world into which they are sent, in the manner of the Trinity, and accomplish in their lives the task, which the Eternal King wishes to realize in the history of each one.*¹³⁰
*CLC 회원들은 자신들이 파견된 세상을 성삼위의 태도로 관상하고, 영원한 임금께서 각자의 역사 안에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과업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수해야 한다.*¹³⁰

3.3. A COMMUNITY AT THE SERVICE OF THE WORLD 세상에 봉사하는 공동체

156. "We aim to extend these bonds of unity to the National and World CLC and to the Church communities of which we are part (parish, diocese), to the whole Church and to all people of good will"¹³¹

“우리는 이러한 일치의 끈을 국가와 세계 CLC,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들(본당, 교구), 전체 교회와 모든 선의의 사람들까지 확장하고자 한다.”¹³¹

157. During the World Assembly in Rome 1979, a communal discernment was made which led to the decision to transform the World Federation of Christian Life Communities into one World Community. The main reasons, which led to making this choice, were as follows

1979 년 로마 세계총회 기간동안 공동식별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세계연맹을 하나의 단일한 세계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sensitivity and commitment to the needs and problems of all humanity¹³²
 인류의 필요와 문제에 민감해지고 그것에 투신함.¹³²
- ◆ being open to people from other countries and other cultures¹³³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개방됨.¹³³

¹³⁰ GP 4. 정관 4

¹³¹ GP 7. 정관 7

¹³² “We must have great sensitivity to the needs of others. The universal dimension of CLC is a challenge and an ideal which invites us to commit ourselves even more in everyway, since we are all equally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A member of CLC and one small group, that has this universal vision, open themselves to Christ's mission which extends to all.” (Rome 1979) “우리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아주 민감해야 한다. CLC 의 보편성은 모든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투신하도록 초대하는 도전이며 이상(理想)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눈에 똑같이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는 CLC 의 한 회원이나 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개방하게 된다.” (로마 1979)

¹³³ “As members of a World Community we are called to establish close bonds with those from other cultures, overcoming all prejudice, and opening our eyes to the points of view of those from other countries and taking an interest in those who live beyond our own frontiers in order to discover the richness of life each has.” (Rome '79) “세계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의 눈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견해에 개방하고, 각 문화가 지닌 풍성한 삶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 범위 너머에 살고

- ♦ the need for unity of vision and action in the face of the world's problems.¹³⁴
세계 문제를 직면하는데 있어 전망과 행동의 일치에 대한 필요¹³⁴
- ♦ being available for what is most urgent and most universal. As members of the CLC we are *predestined for nothing, but available for everything*. While other associations within the Church undertake specific apostolic tasks, CLC remains open to serve all the needs of the Church and the world, whatever they are¹³⁵
가장 시급하고 보편적인 것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음. CLC 회원으로서 우리는 *예정되어진 운명처럼 해야할 어떠한 것도 없으며 다만 모든 것에서(available for everything)*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 특정한 사도적인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CLC 는 무엇이 되었건 간에, 교회와 세상의 요청에 봉사하는데 열려 있고자 한다.¹³⁵
- ♦ the mutual enrichment of communities.¹³⁶
공동체의 상호 자질 향상¹³⁶

4. AN ECCLESIAL COMMUNITY 교회 공동체

4.1. THE BASIS OF THE CLC'S ECCLESIAL CHARACTER CLC 가 지닌 교회적 특성의 기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유대를 맺도록 불림 받고 있다.”(로마 '79)

“The world has need of the witness of a community founded on a love which surpasses national frontiers”
“세계는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에 기반을 두고 건설된 공동체의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ibid).

¹³⁴ “As part of the Church, CLC is called to assume a global responsibility in following the same objectives and having the same world vision, despite differences.” (Rome '79)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CLC 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표를 따르고 동일한 세계관을 지님으로써 지구촌 전체적인 책임을 떠맡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로마 '79)

“As a world community, united in front of common problems, we are able to provide a more adequate response.”
“공동의 문제 앞에서 일치하고 있는 단일한 세계 공동체로서 우리는 보다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다“ (ibid)

¹³⁵ “The field of CLC mission knows no limits: it extends both to the Church and the world, in order to bring the gospel of salvation to all people.” (GP 8) “CLC 의 사명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에 까지 확대된다.”(정관 8)

¹³⁶ “This universality invites us to enrich each other by a deep sharing of our spirituality, our formation programmes, spiritual perception and resources. It is in the level to which each member and each community lives in this universal dimension that we can see national problems objectively and open ourselves yet further to the needs of all the association.” (Rome, '79) “이 보편성은 우리의 영성에 대한 깊은 나눔, 우리의 양성 프로그램들, 영성적 이해 및 자료를 통하여 서로 풍요롭게 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그것은 각각의 회원과 공동체가 이 보편적인 차원을 살아서 우리가 국가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모든 단체의 필요에 우리 자신을 더 개방할 수 있는 단계이다.”(로마, '79)

158. CLC was born and is growing within the Church, and draws from the Church its identity and its universality. This vital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is founded on union with Christ Himself. Union with Christ leads to *union with the Church where Christ here and now continues His mission of salvation.*¹³⁷

CLC 는 교회 안에서 태동하고 성장하며 교회 안에서 신원과 그의 보편성을 찾는다. 교회와의 이러한 결정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일치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사명을 계속하고 계시는 현장인 교회와의 일치로 이끈다.¹³⁷

159. The CLC is, at every level, at the service of the people of God. By its very existence within the Church, CLC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모든 단계의 CLC 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한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CLC 는 다음의 것들을 증진하는데 공헌한다:

- ♦ a Church where one finds communion within a diversity of charisms and ministries, and a shared responsibility for the fulfilment of Christ's mission;
다양한 카리스마와 사목직 속에서 일치를 발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지니고 있는 공동 책임;

- ♦ a Church which is not an end in itself, but "*receives a mission to proclaim and to establish among all peoples the reign of Christ and of God. She becomes on earth the initial budding forth of that kingdom.*"¹³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며 건설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는 교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왕국의 싹이 된다.”¹³⁸

4.2. THE RELATIONSHIP OF CLC WITH THE CHURCH

CLC 가 교회와 맺고 있는 관계

160. *a. Fidelity to the mess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충실함*

The CLC seeks to deepen its understanding of the Gospel, by living the faith that has been passed on to us by the Apostles, interpreted and preserved by the Church and safeguarded by her magisterium.

CLC 는 사도들로 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교회에 의해 해석되고 보전되었으며 교도권에 의해 안전하게 된 신앙을 살아 감으로써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161. *b. Participation in the life of the Church. 교회생활에 참여*

The CLC does not exist in isolation from the rest of the Christian community (parish, diocese, national and universal Church). It is, on the contrary, an integral part of this community and this finds its expression:

¹³⁷ GP 6. 정관 6

¹³⁸ Lumen Gentium 5 인류의 빛 5

CLC 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본당, 교구, 국가교회, 세계교회)와 격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데서 표현되고 있다:

- ▶ in a liturgical and sacramental life, which, centred on the Eucharist, is "a concrete experience of unity in love and action".¹³⁹
 미사성제가 중심이 된 전례와 성사생활을 통해 “사랑과 행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치의 경험”인 전례와 성사생활 속에서. 그것은 미사성제가 중심이다.”¹³⁹
- ▶ in the ordinary life of the Church, by participating in Church activities and identifying, effectively and lovingly, with her needs and problems, and supporting her progress.
 교회활동에 참여하고, 효과적이고 사랑에 바탕을 둔 마음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문제점을 밝히고 교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참여하게 되는 교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162. **c. Collaboration in the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사명에 협력함**

Having received its mission *in the Church and from the Church*, CLC, in accordance with its directives and its pastoral priorities, brings to the people of God and their pastors the gift of its apostolic service and its rich and original charism in a spirit of discernment and shared responsibility.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CLC 는 그의 지향과 사목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하느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사목자들에게 사도적 봉사의 선물과 식별과 책임 분담의 정신에 따른 CLC 의 풍요롭고 고유한 카리스마를 제시한다.

163. **d. Solidarity. 연대**

CLC seeks especially to be open, with a spirit of communion, to the poor, the marginalized and the excluded, in short, to all those who, in the Church and in the world, have the greatest need of help and sustenance: CLC is ready to share what it has with them and to integrate this attitude into its way of life.

CLC 는 친교의 정신으로 교회 안과 세상의 가난한 이들과 소외되거나 배제된 이를 포함한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열려 있도록 노력한다.

¹³⁹ GP 7. 정관 7

III. COMMITMENT IN CLC 서약

COMMITMENT IN THE GENERAL PRINCIPLES AND NORMS.

정관과 통칙에 나타난 서약

164. "*Membership of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requires a personal vocation. For a period of time determined in the General Norms, the candidate is introduced to the CLC way of life. This time is allotted for the candidate and the wider community to discern the candidate's vocation. Once a decision has been made, and approved by the wider community, the member makes a Temporary Commitment, to allow time to test, with the help of the community, his or her ability to live according to the end and spirit of CLC. Then, after a suitable period of time, determined by the General Norms, a Permanent Commitment is made.*"¹⁴⁰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개인적인 성소를 전제로 한다. 통칙에 규정된 일정 기간동안 지원자는 CLC의 생활양식을 소개받는다. 이 시기는 지원자의 성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원자와 CLC 공동체에 할애된 시간이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더 큰 공동체에 의해 승인될 때, 그 회원은 유기서약을 하게 될 것이며, 이 시기동안 개인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CLC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살아갈 능력을 시험하게 된다. 통칙에 규정된 적절한 시기 후에는 종신서약을 하게 된다.”¹⁴⁰

165. "*In whichever way admission takes place, the new members must be helped by the Community to decide whether a call, together with an ability and a willingness to live it, are present, and to become identified with the wider Christian Life Community. After a period of time, normally no longer than four years and no less than one, they assume a Temporary Commitment to this way of life. An experience of the Spiritual Exercises is strongly recommended as a means of arriving at this personal decision.*"¹⁴¹

“어떠한 방식으로 입회가 허락되더라도 CLC 공동체는 새 회원이 CLC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CLC 생활양식을 살아갈 소명과 능력과 기꺼움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더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동일시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상적으로 4년 이내에 새 회원들은 이러한 생활양식을 따라 살고자 유기서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으로써 영신수련이 강력히 추천 된다.”¹⁴¹

166. "*The temporary engagement continues as such until, after a process of discernment, the member expresses his or her Permanent Commitment to CLC, unless he or she freely withdraws from the community or is excluded by it. The length of time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Commitment should ordinarily be no more than eight years and no less than two.*"¹⁴²

¹⁴⁰ GP 10. 정관 10

¹⁴¹ GN 2. 통칙 2

¹⁴² GN 3. 통칙 3

“유기 서약은 회원이 식별을 거쳐서 자유로이 CLC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가 그를 배제하지 않는 한 본인이 CLC 에 종신서약을 하고자 할 때까지 지속 된다. 유기서약과 종신서약 사이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2 년 이상이어야 하며 8 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¹⁴²

167. "An experience of the complete Spiritual Exercises, in one of their several forms (in daily life, a closed month, retreats over several years), precedes Permanent Commitment to the community."¹⁴³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에서 종신서약을 하기 전에 여러 형태 중에서 한 가지로 (일상 생활 속에서 하는 피정, 한달 피정, 몇 년에 걸친 피정) 영신수련 전체에 대한 체험이 선행 된다.”¹⁴³

A. REASONS FOR COMMITMENT 서약을 하는 이유

There are many reasons for commitment, the most important being:

서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68.1 - *The fundamental Trinitarian Theology.* The roots of commitment in CLC are found in God.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of our commitment is that God establishes an unbreakable covenant with His people. The Lord is the first to commit Himself in a permanent and visible way. God has been faithful to this covenant again and again throughout history as witnessed by His liberating deeds. But, it is in the Incarnation that He shows us "without a shadow of doubt" the greatest and irrevocable sign of this covenant.¹⁴⁴

1- 근본적인 삼위일체적 신학. CLC 서약의 근본은 하느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서약의 원리와 기초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영원한 계약에 있다. 주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께서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투신하신다. 하느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거듭해서 당신의 해방의 의지를 드러내신 바와 같이 이 계약에 충실하셨다. 그러나 육화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위대하고 파괴될수 없는 이 계약의 표지를 보여주신다.¹⁴⁴

169.2 - *Anthropological basis:* Human beings are not pure spirit and need to express their deepest experiences through the senses. Our relationship with the mystery of God is best expressed in visible, sacramental signs. We are, equally, part of the times in which we live, so our spiritual and apostolic experiences are lived in these times. Thus, Temporary or Permanent Commitment with the CLC is perceived through the senses. Permanent Commitment signifies that, within time, we pattern our response according to the faithful love of God and the fullness of the mystery of Christ who brings all things to Himself.¹⁴⁵

2 - 인간학적인기반: 인간은 순수한 영이 아니며 자신의 가장 깊은 경험을 감각을 통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가시적인 성사적인 표현을 통해 가장 표현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¹⁴³ GN 4. 정관 4

¹⁴⁴ 2 Cor 1: 19-20 고린도 II 1,19-20

¹⁴⁵ Lk 9:62; Rom 12:1 루가 9,62; 로마 12,1

사도적 경험들은 이시대 안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CLC 회원의 유기 혹은 종신서약은 감각을 통하여 인식된다. 종신서약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충실하신 사랑과 모든 것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비에 따라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⁵

170.3 - *Communal basis - the Church*. We do not live our vocation and mission as isolated individuals. We live them in community and we proclaim before that community of friends and companions in the Lord that we are in and with the Church. The community has the right to see, hear, feel and appreciate our commitment. This helps us to live coherently the way of life to which we have committed ourselves.¹⁴⁶

3 - 공동체적인 기반 - 교회. 우리는 우리의 성소와 사명을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벗이며 동료들의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며 교회와 함께 함을 선포한다. 공동체는 우리의 서약을 보고, 듣고, 느끼고, 평가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투신한 생활양식을 일관성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¹⁴⁶

171. Thus our commitment is to present ourselves freely before the Lord and His people and to give a visible sign of that which we have lived and discerned in our hearts. It is a gesture somewhat similar to a marital engagement. In proclaiming before God and our companions that we have committed ourselves to a spirituality, a way of life and a mission, we are confirming before them our discernment and the gift of ourselves. We proclaim publicly, that the Christian Life Community is the body within which we live the charism that the Spirit of the Lord has given to us.

따라서 우리의 서약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 당신의 백성앞에 자유롭게 바치는 것이며, 우리 마음 안에서 식별하고 살아 온 것에 대하여 가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결혼 약속과 비슷한 점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같은 영성, 같은 생활양식과 사명에 투신했다는 것을 하느님과 동료들 앞에서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식별과 우리의 은사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를 살아가는 조직체임을 공적으로 선포한다.

B.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

1. The process leading to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을 준비하는 과정

172. A reading of the General Principles and General Norms shows that CLC life originates in a call from the Lord to each individual member and that such a vocation is apostolic and universal lived in the Church and within a local community.

정관과 통칙은 CLC 생활이 각 회원들을 하느님의 부르심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그 성소는 교회와 각 단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성소이다.

173. This emphasis on vocation can inspire, better than anything else, the initial steps in CLC. The new members "*must be helped by the community to assimilate the CLC way of life, and to decide whether a call, together with an ability and a willingness to live it, are present*".¹⁴⁷

¹⁴⁶ Mt 6:14-16; 1Thess 1:6-10; Heb 10:23-25 마태오 6,14-16; 데살 I 1,6-10; 히브 10,23-25

¹⁴⁷ GN 2. 통칙 2

성소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어떤 것보다 더욱 CLC 초기 단계를 고무시킬 수 있다. 새 회원은 “CLC 공동체로부터 CLC 생활양식에 적응하고, 그 생활양식을 살아갈 능력과 기꺼움과 함께 성소가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¹⁴⁷

174. Vocation - or calling - is perceived in the beginning as a vague and diffused longing that is, however, strong enough to encourage the person to make contact with CLC. When a person first becomes a member of a community, he/she begins to become familiar with the CLC's way of life and growth.¹⁴⁸ These ways are introduced gradually, as part of a formation process during which spiritual guidance¹⁴⁹ plays an important role.

성소 - 혹은 불리움 - 라는 것은 초기 단계에는 애매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은 갈망이지만 CLC 와 접촉할 정도의 용기를 얻는 것으로 이해된다. 처음으로 한 공동체의 회원이 되면서, 그 회원은 비로서 CLC 생활양식과 성장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¹⁴⁸ 이러한 방법은 영적 지도가 ¹⁴⁹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성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점차적으로 소개되어진다.

175. During this growth stage, the person has to make certain decisions: to join in days of recollection, to participate in a local community, to assist regularly at group meetings, to meet with a spiritual guide, to take part in an apostolic activity, to undertake the Spiritual Exercises or a short retreat of 4 to 8 days etc. In making these decisions, candidates commit themselves progressively to the CLC way of life. On their journey, they will experience different emotions, and these will help them to realise whether or not this is the way for them to enrich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e community, for its part¹⁵⁰, sustains the person with an attitude of discernment and encourages them to take further steps towards growth and commitment.

이 성장의 단계에서 새 회원은 특정한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 그것들은 기도의 날에 참석하는 것, 단위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 정기적으로 그룹 모임에 도움을 주는 것, 영적 지도자와 만나는 것, 사도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영신수련이나, 4 일에서 8 일에 걸친 단기피정에 참가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각 후보자는 CLC 생활양식에 점차적으로 투신한다. 그들은 자신의 여정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CLC 생활양식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얻게된다. 공동체는 나름대로 ¹⁵⁰ 식별의 태도로 후보자들을 대하며, 성장과 투신을 향하여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176. At length the moment arrives when the person must ponder in prayer whether the path along which he or she has been taught and guided for some time (1-4 years according to GN 2), is truly a call and a grace from God. This moment of discernment can arise spontaneously, or it can be a response to a deliberate invitation.

드디어 각자가 일정한 시간동안 (통칙 2 항에 따르면 1-4 년) 배우고 지도받아 온 과정이 진정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불리움이고 은총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숙고를 해야 하는 순간에 도달한다. 이 식별의 순간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의도적인 초대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다.

¹⁴⁸ GP 12. 정관 12

¹⁴⁹ GN 41b. 정관 41,b

2. The purpose and meaning of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의 목적과 의미

177. Temporary Commitment is the expression of a desire to live according to the CLC way of life.¹⁵⁰

This commitment implies a search for the vocation to which the Lord is calling the individual, and the *discernment of this vocation*.

유기서약은 CLC 생활양식에 따른 삶을 살아 가겠다는 갈망의 표현이다. 이 서약은 하느님께서 개인을 부르시는 성소를 모색하겠다는 것과 이 성소를 식별하겠다는 것을 내포한다.

178. In those individuals who already have the necessary disposition, this vocational discernment takes place on two levels:

필수적인 내적 태도를 이미 소유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성소에 대한 이러한 식별이 두가지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

- ▶ The choice of *a state of life* by those who have not yet done so (religious life, of course, excludes a Permanent Commitment to CLC);
아직 삶의 양태를 선택하지 않은 이들의 **삶의 양태에 대한** 선택 (물론 수도자는 CLC 종신서약에서 제외된다.)
- ▶ *Amendment and reformation of lifestyle*, for those who have already decided upon their state of life.¹⁵¹
이미 삶의 양태를 선택한 이들이 **삶의 양식을 개선**¹⁵¹

179. This discernment of vocation does not take for granted a definitive CLC vocation, but tries to remain open to whatever state of life we are being called by the will of God. The process, lived in the CLC way, implies that the person already belongs to a community to which he/she has made a temporal commitment, even if the individual vocation has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성소에 대한 이러한 식별은 명확한 CLC 성소를 당연시 여기지 않지만 어떠한 것이 되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양태에 개방되어 있고자 한다. CLC 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은 개인성소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기서약을 한 회원이 하나의 공동체에 이미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180. An important aspect of such discernment is the question "do they want and desire" to seek and find the will of God in their lives and to follow His call? This presupposes an ever-deepening experience of God fostered by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with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for greater service. They discern whether or not the CLC way is what God wants for them and if they are "open, free and ready" to go on this journey with a "deliberate determination"¹⁵² toward an apostolic way of life.

그러한 식별의 중요한 부분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들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며 찾고자 하는 “원리와 갈망”이 있는가를 질문하는데 있다. 이것은 더 큰 봉사를

¹⁵⁰ GN 39a. 통칙 39a

¹⁵¹ SpEx 189. 영신수련 189

¹⁵² SpEx 97. 영신수련 97

위해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을 통하여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계속해서 깊게 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들은 CLC 의 삶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하신 것인지 혹은 사도적인 삶의 방식을 향하여 “의식적인 결단”¹⁵² 으로 이러한 여정에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기꺼이” 나설 수 있는지를 식별한다.

181. This vocational stage as such is open to different options. For a married adult, for instance,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he/she is called to live a CLC lifestyle in married life. Young people will ask themselves, what style of life (lay, religious or clerical) they are called to. A good number of adults and young people will feel called to live according to the CLC style of life. Others find that their motivation for joining was rather social or affective and, acknowledging that they have no desire to continue further, seek other ways of belonging to the Church.

이러한 성소의 단계는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기혼자에게는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CLC 생활양식을 살도록 불리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질 것이며,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생활형태(평신도, 수도자 혹은 사제직)로 불리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질 것이다. 다수의 성인과 젊은이들은 CLC 생활양식에 따라 삶을 영위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고, 다른 이들은 가입의 동기가 사교나 감성적 이유이었음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지속하고자 하는 원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생활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182. For those young people or adults wh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mmunity answers their deepest aspirations, this stage brings a renewed commitment to the CLC way.

공동체가 자신들의 가장 깊은 염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이들에게 이 단계는 CLC 양식에 대한 쇠신된 투신을 가져다 준다.

183. Thus, "Temporary Commitment", made within the community and accepted by it, is th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s determination to seek God's will by employing Ignatian methods and the community's offer of its own Ignatian process of formation.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체에 의해서 수락되어지는 “유기서약”은 이나시오적인 방법들과 공동체가 제공하는 이나시오적인 양성과정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개인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다.

184. It is important that "Temporary Commitment" should not be reduced to a set of obligations but should be our loving answer, in *the spirit of the Gospel and the interior law of love*¹⁵³, to God who loved us first.

“유기서약”이 단지 일련의 의무로 전락되지 않고 복음의 정신과 내적인 사랑의 법 안에서¹⁵³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185.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play a key role in the discernment of vocation. At this stage of formation, Temporary Commitment fosters in them the dispositions needed for making the Spiritual Exercises well, bearing in mind their apostolic vocation.

¹⁵³ GP 2. 정관 2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은 성소의 식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양성의 이 단계에서 유기서약은 그들에게 사도적 성소를 염두에 두면서 영신수련을 하는데 필요한 내적인 태도를 육성시켜 준다.

3. Ways of approaching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에 이르는 방법들

186. It is important that *those who make a commitment* find a sacramental expression (a sign that does what it signifies) of their desire to seek and find God's will, through the use of Ignatian methods and in the company of the community. At the same time, the *local community* commits itself to accompany and encourage them, offering them the Ignatian methods.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an explicit reference to their commitment to the *World Community*, an apostolic body in the Church.

서약을 하는 이들이 이나시오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추구하려는 자신들의 열망의 성사적인 표현(의미하는 바를 드러내주는 표시)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단위 공동체*는 이나시오적인 방법들을 제공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며 격려하는데 투신한다. 교회 안에서 사도적인 조직체인 *세계 공동체*에 투신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187. Temporary Commitment can be implemented in different ways. One way is to have a yearly meeting for those who have been taking part in CLC for some years at which they could be invited to reflect on the significance of Temporary Commitment. Discernment is thus provoked and those who wish to make their Temporary Commitment can agree on the best way to express it (occasion, form and formula). Another way might be to have each year, as a National or Regional tradition, a procedure, a formula and a fixed date (e.g. World CLC Day, the Feast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Pentecost), when those, who wish, express their Temporary Commitment.

유기서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수 년에 걸쳐 CLC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유기서약의 의미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모임을 매년 개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식별이 벌어지고, 유기서약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유기서약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식(시기, 형태, 방식)에 동의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국가나 지역의 전통에 따라 매년 정해진 절차, 방식, 고정된 날에 (예를 들면 세계 CLC 의 날, 원죄없이 잉태 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등) 유기서약을 하는 방법도 있다.

188. In a well-guided CLC process, this time of discernment of an explicit Temporary Commitments is inevitable. If this is not the case, it could be for one of the following three reasons:

CLC 과정을 잘 따라왔다면, 유기서약에 대한 식별의 시기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 ▶ the process stops at some stage and becomes repetitive;
과정이 어느 단계에서 중지되고 반복되어지거나;
- ▶ commitment is not properly understood, has the wrong meaning or connotation;
서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약이 잘못된 의미나 뜻을 지니고 있거나;
- ▶ difficulties arise from the way in which commitment is expressed and celebrated.

서약이 표현되거나 거행되는 방식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189. Our challenge today is to find visible ecclesial signs for what we are trying to live and believe that express a theological and spiritual point of view in keeping with our formation.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도전은 우리가 살고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교회적 표시들을 우리의 양성에 맞추어진 신학적이고 영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C. PERMANENT COMMITMENT 종신 서약

190. *Permanent Commitment* corresponds in the vocational process of the CLC member, to the stage of full apostolic life: when personal vocation is lived as apostolic mission. The unfolding and expression of all vocations is mission. Those who make their Permanent Commitment are those members who have completed their vocational discernment and have offered themselves to and embraced the CLC's lifestyle. This stage is necessarily linked to *apostolic discernmen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developing mission.

종신서약은 CLC 회원의 성소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성소가 사도적인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때인 완전한 사도적 삶의 단계에 해당된다. 모든 성소의 궁극적인 의미와 표현은 사명이다. 종신서약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성소에 대한 식별을 마치고 CLC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고 투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 단계는 사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사도적 식별과 필연적으로 연결지어진다.

191. Temporary Commitment in CLC is linked to the formation process and corresponds to the call of the Eternal King and the "election". *Permanent Commitment* follows from the CLC way of life, and is in harmony with the trustful surrender of the Contemplation for attaining Love. Commitment is the "Take, Lord and receive..." as a response to the commitment of God who 1) *has given me so much*; 2) *dwells in me, giving me existence and meaning*; 3) *labours and works for me*; 4) *seeing how all good things and gifts descend from above... just as the rays come down from the sun, or the rains from their source, so too from God comes power, goodness, justice, mercy and the necessary desire to live out our commitment.*¹⁵⁴

CLC에서 유기서약은 양성 과정과 연결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응답하는 것이다. 종신서약은 CLC 생활양식에서 유래되며,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 진정으로 굴복하는 것과 조화를 이룬다. 서약은 1)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2) 나에게 존재와 의미를 부여하시며 내 안에 거처하시고 3)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수고하시며 4) 마치 태양에서 광선이 내려오고, 원천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느님께서로부터 권능과 선, 정의, 자비와 우리의 서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열망을 주시며, 모든 선한 것과 은총이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보고 계신¹⁵⁴ 하느님의 투신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여, 받으소서.”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192. Permanent Commitment is the culmination of our vocational discernment in which we express our desire to discover God's will and fulfil it in our apostolic life, in answer to our specific call and our readiness to be sent on mission.¹⁵⁵

¹⁵⁴ SpEx 235-237. 영신수련 235-237

¹⁵⁵ GP 8c. 정관 8c

종신서약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도적 삶과 우리의 특정한 소명에 대한 응답과 사명에 기꺼이 파견되고자 준비되어 있음으로써 완성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원의를 표현하는 우리 성소 식별의 절정이다.¹⁵⁵

1. Permanent Commitment 종신 서약

193. Rather than seeing Permanent Commitment as a risky decision, which limits future freedom, it is important to realise that inner freedom is the foundation of this decision and one of its fruits. Real freedom exists when people are able to direct their lives according to their deepest desires. Thus, they are free inasmuch as they are able to live according to the deep desires the Spirit of the Lord has awakened in their hearts.

종신서약을 미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험적 결정으로 여기기보다는 내적인 자유에 바탕을 둔 결정이며 그의 결과 중의 하나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자유는 자신의 가장 깊은 염원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방향지을 수 있을 때 존재한다. 따라서 주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에 일깨워 주신 심층의 염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그 사람은 자유롭다.

194. Our free acts are not simply based on will power, but are acts of faith and hope. The radical quality of our commitment is not so much based on our capabilities, but on *"the freedom with which Christ freed us and means us to remain free"*.¹⁵⁶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은 단순히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의 행위이다. 우리 서약의 극단적인 특성은 우리의 능력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머물도록 하시는 그 자유”¹⁵⁶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5. For this reason when CLC members reach the conclusion that proclaiming Christ and His Good News to the world around them is what *"I want and desire, and it is my deliberate determination"*¹⁵⁷, they know that the Lord has guided their steps through a long journey. Freedom to commit themselves does not just mean being ready to choose. It really means giving themselves, surrendering to God, and trusting Him totally.

이러한 이유로 CLC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며 깊이 숙고한 결단”¹⁵⁷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긴 여정의 발길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된다. 자신들을 투신하는 자유는 단지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자신을 내어 주는 것, 하느님께 굴복하는 것,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 It is in this spirit that St Ignatius prays: *"Take, Lord, and receive all my liberty, my memory, my understanding, and my entire will - all that I have and possess. You, Lord, have given it all to me. To you, Lord, I return it. Everything is yours. Do with it what you will. Give me only your love"*

¹⁵⁶ Gal 5:1 갈라디아 5,1

¹⁵⁷ SpEx 98. 영신수련 98

and your grace, for that is enough for me."¹⁵⁸ Our freedom comes from God's love and is offered to Him. God loved us first; God committed Himself to us first.

이러한 정신으로 성이냐시오는 “주여,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¹⁵⁸ 하고 기도한다. 우리의 자유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며, 하느님께 봉헌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다.

2. Public Commitment 공적인 서약

197. By bearing witness before the CLC, those making a commitment ask the Lord for the grace that they may give their generous response to His fidelity. By doing so in front of the whole community, they are asking for its help: that the community may accompany them on their journey. The external expression of this internal offering somehow gives it a sacramental character.

CLC 앞에서 증언을 함으로써 서약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충실하심에 관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한다. 전체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은총을 청함으로써, 서약하는 이들은 공동체가 그들의 여정을 동반하며 도움을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봉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봉헌에 다소 성사적 성격을 부여한다.

198. For the rest of the community, the public celebration of commitment bears a certain sacramental dimension. It is a visible sign of the Spirit at work in each member leading, him or her, to a greater commitment to their mission. It is also a sign building and strengthening the community in the footsteps of Jesus Christ, sent by the Father. With a spirit of faith, the public commitment of a member of the community is an invitation to "*rid ourselves of every burden and persevere*" in the service to the one who has called us into community, "*keeping our eyes fixed on Jesus, the leader and perfecter of faith*".¹⁵⁹

공적인 서약의 거행이 공동체의 다른 회원들에게 특정한 성사적 차원을 갖게 한다. 그것은 각 회원들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더욱 투신하도록 이끄는 성령의 가시적인 표징이다. 또한 그것은 아버지로 부터 파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공동체를 세우고 강화시키는 표징이기도 하다. 믿음의 정신 안에서, 공동체 회원이 공적인 서약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지도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분께 봉사하는데 있어서 “모든 걱정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하라는” 초대이다.¹⁵⁹

199. This is the time for confirmation of the Election, to ensure a strong commitment to mission and service.¹⁶⁰ The Spiritual Exercises should play a key role in this life process of living mission helping us to follow, more perfectly, the poor and humble Christ.¹⁶¹

¹⁵⁸ SpEx 234. 영신수련 234

¹⁵⁹ Heb 12:1-4 히브리 12,1-4

¹⁶⁰ GP 11. 정관 11

사명과 봉사에서의 강렬한 투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에 대한 확증을 할 시기가 이때이다.¹⁶⁰ 영신수련은 가난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¹⁶¹

200. At this stage, 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ongoing formation" so that we are always "in good apostolic shape", and thus able to give at any time the most adequate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shall I do for Christ?*

이 단계에서 양성은 “지속적인 양성”으로 이해되어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사도적인 모습”으로 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언제나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¹⁶¹ GP 8d. 정관 8d